

■ 2017년 전문자료집 ■

교육 · 연수보고서



남동경애인공심복기관

■ 2017년 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17-01 언어재활-2017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하계 연수회	5
◦ 17-02 자폐아동 치료의 이해와 실제 교육	21
2. 기능향상지원2팀	
◦ 17-03 뇌성마비 물리치료를 위한 임상 의사 결정	30
◦ 17-04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38
3. 가족문화지원팀	
◦ 17-05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50
◦ 17-06 2017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연수	54
4. 지역연계팀	
◦ 17-07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매뉴얼 보급 및 역량강화 교육	62
◦ 17-08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80
5. 직업지원팀	
◦ 17-09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석교육 CIRCLES(친밀감과 대인관계)	85
6. 운영지원팀	
◦ 17-10 2017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 회계실무 교육연수	94
7.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 17-11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101
◦ 17-12 2017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105
8.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17-13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석교육 CIRCLES(친밀감과 대인관계)	111
◦ 17-14 인권과 국제협력 어떻게 할까?	120
◦ 17-15 공공성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126
9.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 17-16 제1기 정신보건시설 현장맞춤기획과정	131

언어재활 - 2017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하계 연수회



주 최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기 간		2017년 7월 8일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관 B153호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명 단	김가인, 정애진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6시간

언어재활-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하계연수회

<협력치료를 위한 언어치료 관련 분야의 이해I>

◎ 놀이치료의 이해

1. 놀이의 이해

1) Huizinga: 놀이란?

- 사회적인 규범과 제약 속에 갇혀 있던 일상에서 탈피
- 일상 바깥의 허구적인 공간에 인간을 위치시키는 자유의 힘
- 현실의 법규 밖에서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행위
- 주어진 현실의 균형을 탐색할 힘

2) 놀이의 이해의 이해: 놀이는 비생산적이다?

- 놀이의 반대말은 work가 아닌 depression으로 놀이와 일은 상호보완적임
- 놀이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공통된 것들 가운데 특이한 요소를 찾아내고, 호기심과 관찰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짐
- 문제 상황에서 놀이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게 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 문제의 감정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을 모두 볼 수 있게 함

3) 놀이의 이해: 표상(인지적 능력)

- 놀이세계에서는 자유로운 표상이 가능하게 됨
- 현실세계에 대한 유연하고 대안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됨

4) 놀이의 이해: FLOW(사회적 능력)

- 놀이는 흐름에 따라 공동으로 만드는 창조적 이야기로 관찰만 해서는 안되며, 놀이에 함께 참여하여 몰입해야 함

5) 놀이의 발생: Perry(2008)의 신경계충적 모델

- 뇌는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감각정보는 가장 먼저 뇌의 하부에 입력이 됨
- 뇌간→중뇌→변연계→신피질 순으로 정보가 처리됨
-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된 정보가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뇌간이나 중뇌에서 처리가 되어 대뇌피질까지 정보가 도달하지 않음

2.치료적 놀이

1)놀이치료

- 훈련된 놀이치료사가 사회,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의 치료적 힘을 이용하여, 이론적 모델에 따라 대인 관계 과정을 통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것
- 놀이치료사는 원시적인 행동과 언어화의 중간 형태인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을 수용하여 아동의 세계가 투사될 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하며, 아동의 내적 세계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 위한 놀이상대자가 되어줌

2)놀이의 치료적 힘(Schaefer, C. E)

저항극복	→	작업동맹 형성
의사소통	→	아동에 대한 이해
유능감	→	자아존중감 형성
창조적 사고	→	혁신적 문제 해결
정화	→	감정적인 이완
억압된 감정의 해소	→	외상의 해소
역할극	→	새로운 행동의 연습과 획득, 공감
환상/상상	→	환상적 보상
은유적 교훈	→	통찰
애착형성	→	애착형성
관계증진	→	자아실현, 타인과 친밀해짐
긍정적 정서	→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자아상승
공포의 발달적 극복	→	성장과 발달이 됨
게임놀이	→	자아 강화/사회화를 가져옴

◎ ABA(응용행동분석)의 이해

1.응용행동분석이란?

1)특징

- ‘행동은 학습된다’의 원리에 근거함 즉, 모든 행동은 학습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행동도 학습에 의해 바뀌어질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도 학습에 의해 습득될 수 있음
- 실질적인 중재를 강조함 아동의 현재 수준, 중재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재 결과가 아동의 삶에 가져온 향상의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측정이 필요하며, 중재에 대한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근거함

-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아동의 행동변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어야 한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는 아동의 하루 생활의 전 시간대와 장소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말함
-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개인이 아닌 체계에 초점을 맞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기관의 어느 한 전문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기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학생의 아동행동에 접근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됨

2)절차

- 문제행동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 →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 수집 → 아동의 행동지도를 담당 한 팀이 두 번 째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문제행동이 가장 잘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가정을 만듦 → 가설의 정확성과 예언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행동을 직접 관찰함 →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작성함 → 행동지원 계획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동지원 계획을 세움

2.행동 기능평가와 가설 세우기

1)기능적 행동 평가의 필요

-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유지시키는 환경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같은 형태의 문제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음 즉,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재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원인을 찾아 문제행동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2)문제행도 기능 종류

- 문제행동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행동의 기능이 어느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문제행동의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이 지니는 복합적 기능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은 대표적인 문제행동 기능 6가지 임
- 자동적 정적강화 : 문제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엔돌핀과 같은 내적 자극이거나 감각적 자극일 경우
- 사회적 정적강화 : 문제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관심과 같은 사회적 자극일 경우
- 강화제 획득 정적강화 : 문제행동을 통해 덕으려는 것이 음식, 장난감, 게임 같은 구체적인 물건일 경우

- 자동적 부적강화 : 문제행동을 통해 회피하려는 것이 고통, 가려움과 같은 내적 자극일 경우
- 사회적 부적강화 : 문제행동을 통해 피하고자하는 것이 부정적 관심의 표현인 찡그린 얼굴표정이나 꾸중 같은 사회적 자극일 경우
- 활동회피 부적강화 : 문제행동을 통해 피하려는 것이 어려운 과제나 싫은 요구와 같은 구체적 활동일 경우

3)기능적 행동 평가 방법

- 간접평가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이나 아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
- 기능평가를 위한 질문들

■문제행동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문제행동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선행사건 ·문제행동 이전의 어떤 조건들(시간, 장소, 사람 등)이 문제행동 발생을 예언해주는가? ·문제행동은 보통 언제 발생하는가? ·문제행동은 보통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 누가 주위에 있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전의 활동이나 사건은 무엇인가?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아동이 문제행동 전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가?
■후속결과 ·문제행동 발생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한 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한 후 아동은 무엇을 얻는가? ·문제행동이 발생한 후 아동은 무엇을 피하게 되는가?
■문제행동의 효율성 ·그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가? ·그 행동을 할 때 마다 목적을 달성하는가?
■기능적 대체 행동 ·문제행동의 후속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전의 중재 내력 ·문제행동에 대해 이전에 사용했던 중재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 관찰평가 :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동평가를 위한 관찰 평가에는 일화기록, 행동분포 (scatter plot) 관찰지, A-B-C 관찰지, 기능평가용 관찰 검목표 등의 방법이 있음 일화기록이란, 문제행동의 선행사건과 후속결과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동이 관찰된 내용을 이야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행동분포 관찰방법은 문제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을 찾기 쉽게 되어있음 A-B-C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문제행동의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접 관찰하며 기록하는 방법이며 이를 발전시킨 것이 A-B-C관찰 검목표 그리고 A-B-C행동관찰 검목표를 발전시킨 것이 기능적 행동 평가용 관찰지임
- 가설세우기 : 문제행동에 관한 간접평가와 직접 관찰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가 있으면 문제행동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울 수 있음 검증 가능한 가설이란 관찰 가능한 종속변인이나 독립변인이 시사 하는 있을 법한 기능적 관계에 대한 진술을 말함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울 때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선행사건과 문제행동에 대한 진술 외에도 간접평가와 직접 관찰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알게 된 문제행동의 추정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능분석 : 문제행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행동과 환경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임 기능분석은 아동행동과 환경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기 때문에, 기능분석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변인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기능분석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에만 주로 사용되고, 행동의 원인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찾기 위해 많은 자료와 시간을 요하는 문제행동에는 사용하기 어려움 둘째, 기능분석은 심한 자해행동이나 자살과 같이 위험한 행동에는 적용할 수 없음 셋째, 기능분석은 체계적인 여러 단계의 실행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와 인력이 요구됨 많은 연구에서는 기능분석을 실시하여 중재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이나 치료현장에서는 기능분석까지 하지 않고 기능평가를 위한 간접평가와 관찰평가 정도까지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3. 표적행동의 정의와 행동목표 세우기

1) 표적행동의 선정

- 표적행동이란, 응용행동분석과 같은 행동지원을 통해 향상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관찰하고 측정할 행동을 의미함
아동의 문제가 되는 모든 행동을 동시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먼저 다루고 어떤 행동을 나중에 다루어야 할지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함

- 우선순위 10가지

-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일 경우
- 더 복잡한 상위 행동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선수기술일 경우
-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 받을 기회가 많은 행동일 경우
-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일 경우
- 표적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중재를 받은 적이 없는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행동일 경우
- 생활연령에 적합한 행동일 경우
- 표적행동이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행동일 경우
- 표적행동이 중재를 통해 실제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 목표와 일치할 경우
- 표적행동이 언어가 아닌 실제적 행동일 경우
- 표적행동이 최종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일 경우

- 심각성에 따른 우선순위

- 파괴행동 :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의미
- 방해행동 : 직접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된다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파괴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함
- 경미한 방해행동 : 학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직접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수용을 어렵게 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된다면 방해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함

-사회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

- 문제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
- 변화되면 활용할 기회가 많은 행동
- 오래 지속되었던 문제행동
- 향상되었을 때 더 많은 강화의 기회가 제공되는 행동
- 학생의 행동발달과 독립성 증진에 중요한 행동
- 개선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불필요한 부정적 관심을 줄일 수 있는 행동
- 학생의 중요 인물들에게 보강이 되는 행동
-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
- 행동지원에 비용이 덜 드는 행동

2)표적행동의 조작적 정의의 필요성

-어떤 행동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그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관찰자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관찰과 평가가 어려움 서로 다른 관찰자가 하나의 행동을 보고 행동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서로 동의 할 수 있으려면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또한 같은 관찰자가 행동을 관찰 할 행동이 발생했을 때 다른 행동들과 변별할 수 있으려면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3)행동목표 세우기

-행동목표 세우기의 필요성 : 첫째, 행동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동을 포함 하여 아동의 행동지원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둘째, 명확한 행동목표는 행동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 행동을 지원 할 때 아동의 현재 행동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서 어떤 중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줌 셋째, 행동목표는 중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넷째, 행동목표를 세우는 것은 법률조항을 준수하는 것임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학습 수행 수준과 교육 목표가 포함되어야함

-행동목표의 구성 : “(학습자)가 (조건)할 때, (기준)수준으로 (행동)할 것이다”로 구성되며 여기서 학습자란, 행동을 변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개별아동을 의미함 행동이란, 아동에게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지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며 조건이란, 기대되는 목표행동과 관련된 선행자극으로 환경적 상황, 사용될 자료, 도움의 정도, 구어적/문어적 지시 등을 뜻함 그리고 기준은 행동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수용할 만한 최소한의 수행 수준을 의미함

- 행동수행 수준에 따른 행동목표

- 습득 : 처음으로 행동을 일정수준만큼 할 수 있게 된 것
- 유창성 : 아동이 획득한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적절성(시간의 속도와 길이)
- 유지 : 습득한 행동을 다시 가르치는 것 없이 오랫동안 수행하는 능력
- 일반화 :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 행동수행 수준에 따른 장·단기 행동목표

-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
- 행동목표의 네가지 구성요소(아동, 행동, 조건, 기준)가 포함되어야 함
- 주요 동사는 관찰 가능한 용어이어야 함
- 긍정적 표현을 사용해야 함(~해야 한다)
- 조건은 반복될 수 있어야 함
- 기준은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행동은 관찰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히 '증가할 것이다' 또는 '향상될 것이다' 등의 표현을 삼가야 함
- 행동목표는 기능적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함
- 행동목표는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함
- 행동목표는 아동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함
- 행동목표는 습득의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함
- 행동목표를 세우는데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음

4. 선행사건 및 배경사건 중재(문제행동 예방)

- 선행사건 및 배경사건 중재란 처음부터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임

1) 문제행동의 기능이 관심끌기인 경우

- 성인의 계획된 관심 제공하기 : 성인과 함께 작업 또는 성인이 주기적으로 관심을 제공함
- 또래의 계획된 관심 제공하기 : 또래와 짝을 지어주거나, 또래교수 진행
- 아동에 대한 근접성 증진하기 : 좌석배치를 바꾸거나, 주기적으로 교실을 돌아다님
- 선호 활동 제공하기 : 교사가 다른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동이 선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

2)문제행동의 기능이 회피인 경우

- 과제의 난이도 조절
- 선택의 기회 제공
- 아동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활동에 추가하기
- 활동을 통해 의미 있고 기능적인 성과를 얻게 하기
- 과제의 길이 조절하기
- 과제 수행 양식의 수정 : 자료나 매체 변경
- 행동 모멘텀과 과제 분산의 사용 :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과거에 이미 수행했던 단순하고 간단한 과제들을 제시함
- 예측 가능성 향상 :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앞으로의 활동 변화에 대한 단서 제공
- 교수 전달 방법의 변화 : 즐거운 목소리 사용

3)문제행동의 기능이 구체적 물건 획득인 경우

- 미리 알려주기 : 물건 반납 시간이 되어간다거나 활동이 마무리 되는 시간을 미리 알려줌
- 전이 활동 계획하기 : 아주 좋아하는 활동과 좋아하지 않는 활동 사이에 보통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계획함
- 근접성 증진하기 : 매우 선호하는 물건을 아동의 손 닿는 범위에 둬

4)문제행동의 기능이 감각자극 얻기인 경우

- 대안적 감각 강화 제공 : 아동이 문제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감각 자극과 동일한 자극을 제공
- 풍부한 환경 제공 : 흥미롭고 자극이 많은 활동으로 환경을 구성함

5.대체기술의 교수

- 문제행동의 기능이 밝혀지면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교체기술을 가르쳐야 함 이때 교체기술은 문제행동보다 덜 힘들어야하며, 문제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같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또 문제행동보다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일관된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교체기술 뒤에 불쾌한 사건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 함
- 대처기술이나 인내기술이란, 아동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하거나 견디기 위한 기술임 대처기술로는 분노조절 훈련, 횡경막 호흡이나 전진적 근육 이완법을 통한 긴장 완화 훈련,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훈련, 자기점검이나 자기교수, 자기 평가법 훈련 등이 있음 인내하기 교수는 특정 상황을 회피하거나 물건 또는 관심 얻기를 원하지만 즉각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제시될 수 없을 때 강화가 지연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일반적인 적응기술의 교수란,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하는지, 아동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일반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함

1)새로운 행동의 습득방법

- 행동형성법 : 표적행동 또는 최종행동에 점진적으로 근접한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차별 강화하여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킴
- 행동연쇄법 : 한 행동을 자극조건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동(특정한 순서로 잇달아 일어남) 혹은 반응들로 나누어 연쇄상에 있는 별개의 행동들을 강화하여 이러한 행동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절차임
 - 전진형 행동연쇄법 : 과제분석을 통해 결정된 단계 행동들을 처음 단계 행동부터 마지막 단계 행동까지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절차
 - 후진형 행동연쇄법 : 과제분석을 통해 결정된 행동을 마지막 단계행동부터 처음 단계 행동까지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절차
 - 전체과제 제시법 : 전진형 행동연쇄법의 변형으로 과제분석을 통해 결정된 모든 단계의 행동들을 매 훈련회기 마다 가르치는 것으로 아동이 행동연쇄상에 있는 대부분의 행동 혹은 모든 행동을 습득하였지만 그 행동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함
- 촉구 : 변별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 자극을 제시하는 것임 촉구사용의 주의사항으로는 아동이 변별자극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과 가능한 빨리 사라져야하는 것이며, 무계획적 촉구는 피해야 함
 - 언어적 촉구-규칙 : 개념에 대한 정의나 규칙을 언급함
 - 언어적 촉구-지시 : 단계별 교수로 지시를 사용하려면 지시는 명확해야하며, 아동은 일반적인 변별자극에 대해 자극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언어적 촉구-힌트 : 특징에 대한 힌트를 소리, 언어 등으로 제시 함
 - 시각적 촉구 : 그림이나 글로 촉구 함
 - 신체적 촉구 : 신체적 접촉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함
 - 촉구용암 : 촉구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제거함
- 모델링 :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며 가르치고자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아동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임
 - 모델링 과정 : 주의집중 → 파지 → 재생 → 유인 및 동기화

6.문제행동에 대한 후속 반응

1)행동의 기본 원리

- 강화 : 행동 발생에 뒤이어 강화자극이 제시되거나 혐오자극이 철회되었을 때 미래에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
- 벌 : 행동 발생에 뒤이어 혐오자극이 제시되거나 강화자극이 철회되었을 때 미래에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됨

2)행동을 증가시키는 기법

- 강화절차 : 강화가 주어질 적합한 기준 설정 → 강화제가 실제로 강화역할을 하는지 점검 → 강화규칙과 목표 행동을 구체화 →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강화함 → 행동습득 후에는 간헐적으로 강화함 → 일반화를 위한 계획 수립
- 강화제 선정 : 아동에게 질문 및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아동관찰, 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화함
- 강화의 기본 원칙
 - 목표행동에만 강화함
 - 목표행동 직후 강화함
 - 강화스케줄을 조직적으로 연장함(초기에는 지속강화, 뒤에는 간헐강화)
 - 인지능력이 낮으면 사회적 강화는 물질적 강화에 함께 제공함
 - 행동에 관심을 보이면 성의 있게 강화함
 - 교사/부모 통제에서 학생통제로 이동함
- 강화제 사용 : 1차 강화제(음식, 물/음료수, 수면)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고 증가시키지만 나중에는 2차 강화제(유형 강화제, 사회적 강화제, 활동 강화제)로 대체되어야 함
- 토큰 강화제

3)행동을 감소시키는 법

- 차별강화 :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킴
- 낮은 비율 행동 차별강화 : 일정한 시간간격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미리 정한 기준 만큼 또는 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면 강화해주는 것
- 다른 행동 차별강화 : 일정한 시간간격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강화해 주는 것
- 대체행동 또는 상반행동 차별강화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대신하는 대체행동이나 상반행동을 하면 강화해 주는 것

- 소거 : 전부터 강화되어왔던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주어지던 강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절차임
- 유의점 :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표적행동을 유지시키는 강화제를 찾아야함 또한 소거와 함께 상반행동의 강화가 필요함(또는 기능이 같은 대체행동)
- 반응대가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 즉시 아동에게 이미 주어진 강화물이나 특전을 제거하여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임
- 타임아웃 : “정적강화로부터 타임아웃”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행동의 결과 일정한 시간동안 정적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의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임 타임아웃의 첫 번째 요소는 정상적인 환경과 타임아웃의 환경의 차이이며, 둘째는 행동의 결과로 정적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 감소하는 것임
- 과잉교정 :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벌로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하는 절차임
- 상황회복 과잉교정 : 아동이 환경을 어지럽힌 경우 자신이 어지럽힌 환경을 원래대로 또는 더 깨끗한 상태로 하게하는 절차임
- 정적연습 과잉교정 : 아동이 부정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아동에게 바람직한 정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는 절차임
- 부적연습 :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임
- 혐오자극 제시 : 행동 뒤에 신체에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무조건적인 혐오자극을 주어 그 행동의 미래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무조건적인 혐오자극과 짝지은 결과로 혐오를 경험하게 되는 조건화된 혐오자극을 주어 행동의 미래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음

7.수행 효과에 대한 평가

1)평가 계획의 개발

- 행동지원의 실행을 통해 문제행동이 감소했는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대체기술의 사용이 증가했는지, 아동의 삶의 질이 일반적으로 향상했는지 점검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행동지원 계획의 실행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와 그 기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지원계획이 효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지, 지원계획 내용대로 실행되었는지, 지원계획 요소의 수정이 필요한지, 지원계획이 가설과 맞는지, 행동의 기능적 진단이 맞는지, 지원계획이 아동의 삶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각통합치료의 이해

1.감각통합치료의 이해

1)감각통합이란?

- 정의 : 개인의 몸과 환경으로부터 유입된 감각을 조직화하는 신경학적 과정으로서 우리 몸을 환경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감각통합의 가정
 - 중추신경계는 계층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음
 - 자극의 의미 있는 등록-중추신경계의 조직화-적응반응의 순으로 감각정보 처리됨
 - 뇌는 사람을 조직화하거나 이익을 주는 자극을 찾도록 선천적으로 조직화된 프로그램임
 - 한 가지 감각의 입력은 전체적인 유기체의 상태를 억제하거나 촉진할 수 있음
 - 중추신경계 내부에는 가소성이 있음
 - 정상적인 인간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남

2)감각통합의 기능과 기능장애

- 감각처리, 감각통합이란, 감각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중추신경계가 적절한 운동이나 행동으로 변환하는 방법임
- 감각처리장애, 감각통합장애란, 감각정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한 반응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는 상태

-감각처리

- 감각 : 5sense(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Interoception(배고픔, 목마름, 가려움, 고통 등), Proprioception(전정감각, 고유감각계)
 - 전정감각계(vestibular system) : 중력에 대한 안정감, 눈동자·머리·몸통 자세 조절, 몸통과 머리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눈동자 움직임의 안정성 확보, 근긴장, 시각과 청각의 배경, 양측협응, 공간에서 방향을 지각/인식, 자율신경계 반응
 - 고유감각(proprioceptive system) : 신체인식, 운동조절(정교한 움직임), 자세조절(무의식적 균형), 실행
 - 촉각(tactile system) : 접촉의 특성/위치/강도 인식, 신체인식, 실행(언어 실행), 시간변별, 정서적 안정, 모아 애착, 사회기술
- 감각처리 기능장애 증상 : 어눌한 움직임, 행동문제, 불안/우울, 학교 부적응 등

3)감각통합 치료의 목표

- 감각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기
- 적절한 각성수준을 유지하고 실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 전 준비 상태를 갖추기
- 적절한 행동을 일반화하기
- 일반적인 아동기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친구와 어울려 놀기, 학교 생활, 먹기, 입기, 자기 등의 과제)

4)감각치료와 언어치료의 협업

- 필요성 : Attention and regulation, Postural stability, sensory integration, executive function, hand-writing skills
- 강점 :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 시너지 효과, 책임 분담, 더 많은 자극 제공, 일관성 있는 자극이 제공, 아동의 행동 양상 파악이 용이함, 치료사 역량 강화 등
- 필수 요소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배, 자유로운 의견교환, 영역간의 이해, 모든 팀원들의 동등한 참여, 공통적 합의점 만들기,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 지속적인 평가, 강한 리더십

◎결론

현재 각 영역 전문가들이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치료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 분야의 문제점만 고려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종합적인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 현 시점의 상황이다 이에 다른 전문 영역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하는 협업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다

강의는 놀이 치료, ABA, 감각통합치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역별 기본적인 이론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여러 영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차후 관내 타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치료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폐아동 치료의 이해와 실제 교육



주 최		한국 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기 간		2017년 7월 22일(토) 10:00-17:00 2017년 8월 26일(토) 10:00-17:00
장 소		서초구 서초동 1364-39 지훈빌딩4층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명 단	김가인, 임은주, 정애진, 황송이
	인 원	총 4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12시간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자폐아동 치료의 이해와 실제

1. 자폐스펙트럼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

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의 및 진단기준

미국정신의학회(APA)가 발행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에 의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에 해당된다. 신경발달장애는 중추신경계, 즉 뇌의 발달 지연 또는 뇌 손상과 관련된 정신장애로 지적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특정 학습장애, 운동 장애와 같이 6가지의 하위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PDDs-전반적 발달장애(DSM-IV)의 하위영역
자폐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장애, 아스퍼거 장애, 비전형 자폐증을 포함하는 불특정 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는 2013년 발행된 DSM-5에서 전반적 발달장애(PDDs)라는 용어와 그 하위유형들이 삭제되고 대신 도입된 새로운 단일범주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ASD-자폐스펙트럼장애(DSM-5)의 포함영역
자폐장애, 소아기붕괴성장장애, 아스퍼거 장애, 비전형 자폐증을 포함하는 불특정 전반적 발달장애

1)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기준(APA, 2013)

A.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다음 세 가지가 현재 나타나거나 나타난 내력이 있다.
1. 사회적-정서적 상호성의 결함(예: 비정상적인 방식의 사회적 접근, 정상적인 주고받기식 대화의 실패, 관심, 정서, 감정의 제한적인 공유,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또는 반응의 실패)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예: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합이 어려움, 비정상적인 눈맞춤과 신체언어, 몸짓의 이해 및 사용의 결함, 심한 경우에는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완전한 결여)
3. 대인관계의 형성, 유지, 이해의 결함 (예: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는 행동 조절의 어려움 상상적 놀이의 공유 및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심한 경우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의 결여)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패턴 다음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현재 나타나거나 나타난 내력이 있다. 1. 정형화된 혹은 반복적인 행동 물체 사용이나 언어 사용 (예: 단순한 운동 상동증, 장난감 일렬로 세우기 혹은 물건 돌리기, 반향어, 기이한 언어 사용) 2. 동일한 것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완고한 집착, 또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의식화된 패턴 (예: 작은 변화에 대한 극심한 불쾌감, 전환의 어려움, 경직된 사고패턴, 의식화된 인사법, 매일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동일한 음식을 먹으려는 욕구) 3. 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고착된 관심 (예: 이례적인 물건에 대한 강한 애착 혹은 집착,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고집스러운 흥미) 4. 감각적 입력에 대한 과대반응 혹은 과소반응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 (예: 고통 온도에 대한 현저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촉감에 대한 혐오반응, 특정 물건 만지거나 냄새 맡기에 대한 집착, 빛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매료)	
C. 이러한 증상들이 발달기 초기에 나타나야 한다(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아동의 제한된 능력을 초과하고 나서야 증상들이 뚜렷해지거나 또는 학습된 전략으로 인해 증상이 가려질 수도 있다.	
D. 이러한 증상들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손상을 초래한다.	
E. 이러한 교란(disturbance)은 지적 장애나 전반적 발달지체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흔히 동시에 발생한다. 이 두 가지의 공존진단을 내리려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반적인 발달수준에서 기대되는 바에 미치지 못해야한다.	
주의사항: DSM-IV에 의해 자폐 장애, 아스퍼거 장애, 불특정 전반적 발달 장애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현저한 결함은 갖고 있으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준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은 사회적(실용적)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내리려면 A의 3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B의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주요 2대 증상을 각각 매우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단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단계, 지원이 필요한 단계로 나누어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1단계 매우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단계	A기준의 측면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심한 기능적 손상, 제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 나타난다. B기준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든 활동범위에서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의 경직성, 전환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
--	---

2단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단계	A기준의 측면에서 주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 현저한 결함을 보이거나, 제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타인에 대해 축소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B기준에서는 1단계에 제시된 행동의 빈도 및 심각성이 모든 활동범위는 아니지만, 많은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3단계 지원이 필요한 단계	1단계와 2단계에 비해 심각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이다. A기준의 측면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타인과 번갈아가며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대인관계에 있어 다가가려는 시도가 비정상적이거나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B기준의 측면에서는 1단계, 2단계에 제시된 행동의 심각도가 일상생활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하여 활동 전환에 어려움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적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3.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특성

1) 사회적 상호작용 · 정서적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아 시기부터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며,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렵고 상황의 변화에 대응이 힘들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눈 맞춤,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보인다.

2) 언어적 측면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지체되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말의 억양이나 리듬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의미 없는 혼잣말을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잘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대답대신 따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명사를 혼동하거나 ‘나’라는 말의 사용이 어렵다.

3) 인지·행동적 측면

25% 내외는 정상 또는 경계선급 인지기능을 보이고 75% 내외는 지적장애 범위에 속한다. 기억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부적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특정한 물건이나 물건의 일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한 행동을 반복한다. 물건을 계속 돌리거나 일렬로 늘어놓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며 오랫동안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기도 한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감각정보를 뇌에서 해석하고 통합하는데 장애가 있다.

2. 자폐아동을 위한 검증된 교육방법

1. 다양한 치료방법

- 정신역동적 치료법
- 감각통합치료
- 청각통합훈련
- 비타민요법
- 조력의사소통
- 발달모델에 따른 치료법
- 인지발달 모델에 따른 치료법
- 인지/행동 모델에 따른 치료법
- 응용행동분석
- 집중 및 디스크리트 트라이얼 훈련

1) 정신역동적 치료법

- 자폐아동들은 부모와의 첫 상호작용이 부정적이 때문에, 유아기에 사회로부터 철회했다는 전제에 근거하는 치료법
- 자폐아동은 외부세계가 혼란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아동을 그곳으로부터 구절하기 위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주기

2) 안아주기 요법

- 애착형성 실패에 초점을 맞춘 정신치료법의 한 유형
- 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외부세계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가정
- 모와 사회적 접촉을 원하지만 접촉을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가정
- 애착형성을 위해 아동을 꼭 껴안아주기
- 아동이 화를 내거나 좌절하면 아동이 자신의 부적 감정을 해결하도록 모가 안아주기 강조

3)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자폐 아동들이 스스로 부적감정을 해결하고 친숙한 상호작용을 받아드리도록 도움
- 환경에 대한 학습된 반응 때문이 아니라 감정정보 전달과정의 선천적 기능장애로 인해 자폐 아동들은 사회로부터 철회한다고 가정
- 장난감 혹은 다른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 이루어지는 작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격려해줌으로서 아동과 접촉을 시도
- 놀이방법을 통해 가족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놀이 제공

4) 감각통합요법

- 신경학적 재결합에 근거한 치료법, 감각정보 전달과정에 초점을 맞춤
- 감각입력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짐
- 감각자극을 잘 통합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어 자신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됨
- 감각입력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진전이 다른 영역의 기능적 기술들을 습득 증진시키지는 않음

5) 패터닝

- 뇌는 선천적으로 잘못 결합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한 치료법
- 뇌의 기능이상을 재결합
- 매일 5~6시간씩 높은 강도로 진행되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 운동
- 언어 처리 및 사회적 기술들이 증진된다고 주장하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혀짐

6) 청각통합훈련

- 뇌의 영역을 재결합하게 해주어 자폐아동이 주의를 쉽게 옮겨갈 수 있고 다양한 자극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
- 몇 회기로 구성, 자폐아동이 듣기 적합한 필터된 음악을 들려줌
- 혼란스럽게 하는 주파수가 제외된 음악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주파수의 범위가 점차 늘어남

7) 비타민요법

- 비타민B6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함
- 부적행동이 감소되고 발성이 증진되며 일반적인 자폐 증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됨
- 섭식행동과 수면행동이 좋아졌으나 정신약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전혀 없어 관심을 끌었음
- 뇌의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쳐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8) 조력 의사소통

- 컴퓨터 혹은 작은 키보드에 메시지를 타이핑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대안적 의사소통 전략
- 자폐아동이 자신의 동작을 통제하고 의사소통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줌
- 인지능력은 결함이 없지만 단어나 생각을 말하고 전달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 의사표현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간주

9) 발달모델에 따른 치료법

- 발달단계에서 먼저 습득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하위 기술을 먼저 가르쳐야 함
- 하위기술을 습득한 후 상위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함

10) 인지-발달 모델에 따른 치료법

- 사람, 사물 및 사건에 대한 아동의 행동을 의미하는 “현실세계”의 발달을 강조
- 사물과 사람에 대한 자폐아동들의 이상행동을 교정해주고 사람들과 주위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

11) 인지-행동모델에 따른 치료법

- 자신들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모니터링, 자기교육, 자기평가와 같은 자기치료법과 행동수정테크닉을 결합해 사용한다고 주장
-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함
- 학습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조작적으로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훈련은 세분화되고 명백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자기-진술, 자기-교육, 자기-통제 행동으로 구성됨

12) 응용행동분석

- 행동에 관련된 자극들을 조작함으로써 행동을 형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함
- 1:1로 반복해서 자폐아동을 가르치며 수집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함
- 일상기술을 가르치는 동안 강화와 처벌을 사용하는 원리로 부적행동을 감소시키도록 함

13) 집중 디스크리트 트라이얼 훈련(DTT)

- 응용행동분석이론을 따르지만 세분화된 행동치료 프로그램임
- DTT는 높은 강도로 1~2년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기술들을 주당 40시간 가르치며 언어발달에 초점을 맞춤

14) 다양한 환경조건과 적절한 교육

- 효과적인 치료는 개인적 요구에 적합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함
- 단순한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동의 특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경험을 통해 이루어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 응용행동분석(ABA) - DTT(디스크리트 트라이얼) - PRT(핵심반응훈련)
희망적 방법	- 놀이중심전략 - 보조공학 - AAC - PECS - 우연학습
지식 정보가 제한된 방법	- 애완동물 요법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AIT(청각통합훈련) - 인지대본 사용
추천할 수 없는 방법	- 안아주기 요법 - 조력의사소통

2. 자폐아동 치료의 이론적 기초

1) 행동이론

-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결함 및 문제행동을 자폐증의 증후로 간주하지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과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간주
-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구조화 된 학습기회를 배울 수 있는 구조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
- 학습 환경의 조정·촉진과 행동형성 테크닉의 사용 및 즉각적인 강화피드백을 사용

2) 발달적 접근법

- 신경학적 결함으로 인해 언어·인지·사회성 및 운동발달에 지연이 나타난다고 주장
- 아동이 배우지 못한 기술로부터 시작해 나이에 적합한 기능적인 기술을 가르쳐줌
- 발달적으로 적절한 교육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연적이고 환경적인 교육전략을 포함하여 자연스러운 교육방법을 활용
- 우연적 교육은 특정한 기술을 필요한 상황에서 그 기술을 가르쳐주며 자연스러운 장면·교재·상호작용·결과를 통해 기능적 기술을 학습하고 일반화를 증진시킨다고 제안

3) 지각-인지이론

- 외부자극에 의해 과도한 자극을 받으며 감각정보 전달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기초
- 시각단서 및 환경적 지원
- 일정: 고정된 일정과 서로 다른 단서를 활용
- 주의집중 및 모방

3. 결론

최근 복지관에 내관하고 있는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증가로 치료사들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2회로 나뉘어 진행 되었으며, 1회에서는 자폐성 아동의 원인, 특성, DSM-4와 DSM-5의 차이점 등 자폐성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2회에서는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교육(검증 된, 검증되지 않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각 영역(정서, 언어, 인지발달)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폐성장애 특성을 알 수 있어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교육 동향에 대한 최근 정보를 얻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차후 교육에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뇌성마비 물리치료를 위한 임상 의사 결정



주 최		대한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기 간		2017년 6월 10일 ~ 6월 11일
장 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1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명 단	김진봉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16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뇌성마비 물리치료를 위한 임상 의사 결정

1. Normal development

(1) Development theories

①Maturational theories

-Piajet, Gesell, Bayley, McGraw등이 주장하였으며, 아동 발달은 신체에 미리 예정된 특정 설계 혹은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이론이다.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Behavioral theories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고, 이러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학습이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적절한 자극과 그 반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③Dynamic systems theories

-과제목적(task goal)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이론이다. 움직임은 감각계, 운동계, 근육 골격계 그리고 환경계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일어난다. 정상적인 운동 전략들(movement strategies)은 근육 골격계와 환경계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과제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닫힌 고리체계와 열린 고리체계가 되먹임조절(feedback control)과 먹임전 조절(feedforward control)이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한다.

④Central pattern generators

-척수가 척수상부 구조들로부터 하행하는 입력을 받거나 단순한 반사만을 조절하는 구조로 보지 않고 척수 상부 구조들의 명령 없이도 조화롭고 매우 복잡한 보행을 조절하는 중추가 척수에 있다는 것이다.

(2) Normal development

생후 1년의 정상운동발달												
연령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체적 발달	신체적 발달이 시작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신체적 발달이 계속됨(근육이 발달함)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운동 발달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정신 발달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언어 발달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사회성 발달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정서 발달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머리 돌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

2. Evaluation & Examination

(1) 표준화된 평가도구

① 정의

- 평가도구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고(타당도), 누가, 언제 검사 하더라도 일정한 평가가 가능한(신뢰도) 평가도구
- 지역, 시대, 질환에 따라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되어 있음
- SOAP의 객관적 단락에 결과를 기록함

② 사용목적

- 물리치료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 예후를 판단하기 위하여
- 치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 진전(발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 발달 평가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용어

① 타당도

- 각 평가 항목이 실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내용타당도(validity)

② 신뢰도

- 평가(측정)가 얼마나 일관되게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 검사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검사자내 신뢰도(intra-reliability)

③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 교정연령(corrected age)

- 실제 태어난 날부터 계산한 만 나이를 생활연령이라 함
-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를 교정연령이라고 함
- 조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2세까지는 교정연령을 쓰고 그 이후에는 생활연령을 사용

(2) 평가도구

① 참여에 대한 평가도구

- 삶의 질: SF-36, Kidscreen, WHOQOL
- 참여/여가: GASP, CAPE/PAC

② 활동에 대한 평가도구

- 전반적 발달: PEDI, GMFM, PDMS, BOT II
- 기능적 보행평가, 10m walking test, 30s walking test, TUG, TUDS
- 상지기능: ABILHAND-Kid

③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도구

- 균형: BBS, Romberg's test, one leg standing test
- MMT, ROM, MAS, MTS(Modified Tardieu Scale), VAS

3. Procedure Intervention

(1)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되어 온 물리치료 중재방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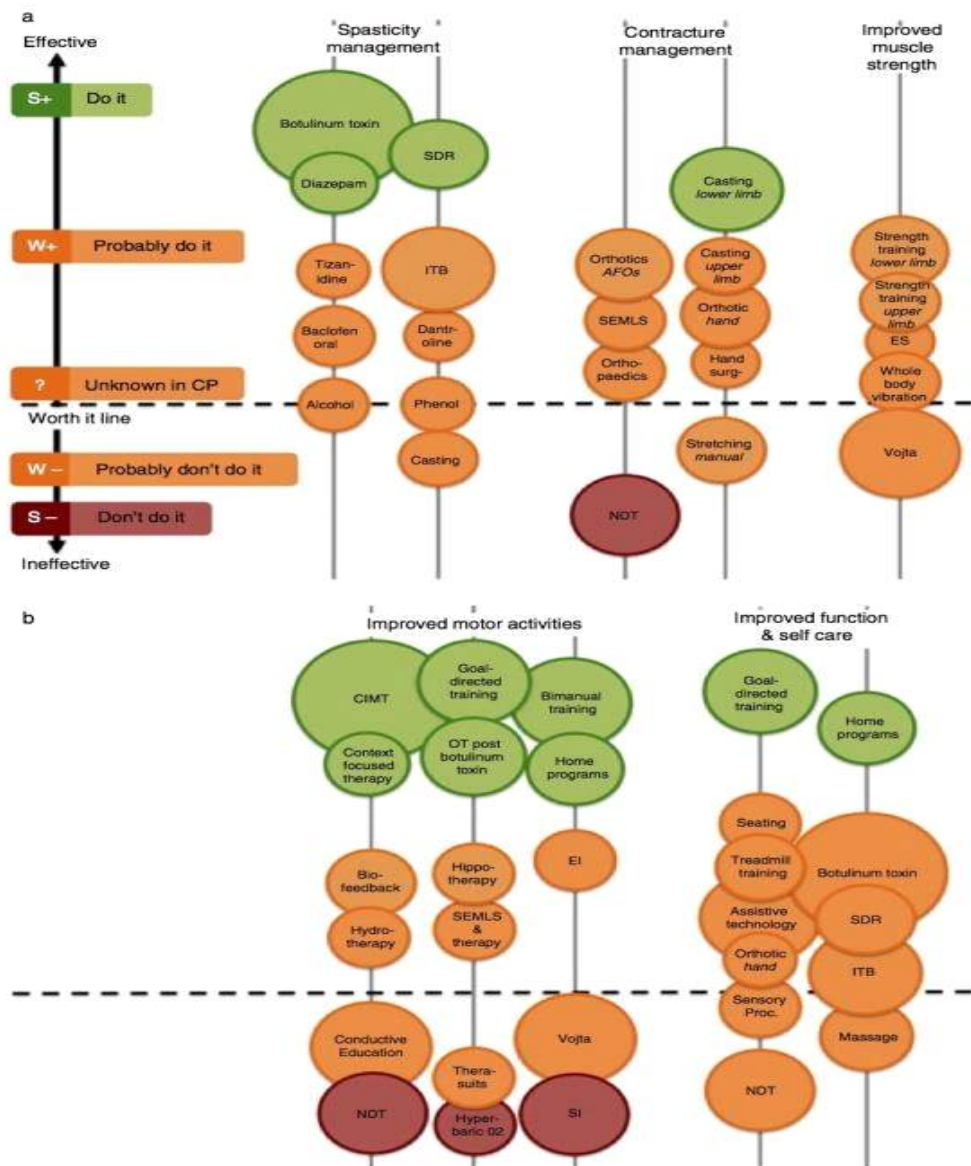


Figure 4: State of the evidence for cerebral palsy intervention by outcomes.

(2) 목표 지향적 치료의 원칙 및 치료 사례

① 목표 지향적 치료의 원칙

1) 목표 지향적 치료(Goal directed therapy)란?

- 아이와 가족의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여 능동적 학습 유도하고 아동의 독립적 삶을 목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후 가정 프로그램 짜고, 함께 치료사와 훈련하며 중재 해나가는 과정

2) 목표 지향적 치료의 핵심 요소

- 목표는 치료사 중심이 아닌 아이와 가족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세워야 한다.
- 아이와 가정만의 특별한 강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중재한다.
- 일상과 기능적 상황에서 운동 기능을 능동적으로 연습하게 한다.
-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버리고, 생체역학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활동이 해결될 것이라는 관점을 버린다.

3) 운동 학습 적용

- 내적 집중(움직임의 형태)보다 외적집중(움직임의 결과)이 운동학습에 효과적이다.
-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성공하는 경험이 있어야 효과적이다.
- 너무 쉽거나 어려운 목표는 효과적 학습을 방해한다.
- 피드백은 움직임과 동시에 제공하기보다 움직임 종료 후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긍정적 반응과 관심과 칭찬, 보상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뇌성마비 아동의 목표 지향적 치료 사례

case 1.

✓ 이름: 김**

✓ 성별/나이: 남 7세

✓ cerebral palsy: spastic diplegia

✓ GMFCS level 4/ MACS level 3/ CFCS 5

✓ height/weight: 110cm/16kg

✓ 이동: 실내-네발기기, 실외-유모차 사용

✓ 자세유지 및 전환: 바닥에 혼자 앉기 가능, 의자에 앉기 어려움

1) 개선해야 할 활동들 및 중요도 파악(보호자와 치료사 협동)

제한되는 활동	어려운 이유	중요도(10점 척도)
밥 먹기	손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 음식물을 입 근처까지 가져오기만 가능. 앉은 자세가 지속되면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짐	8
대/소변 처리	대/소변 의사표현 및 처리 어려움	7
자동차 타고 내리기	완전히 들어서 옮겨 주어야 함	8
의자에 올라앉기	의자를 잡고 팔을 펴기가 어렵고, 양측 다리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넘어짐	10

2) 목표 설정 후 수행능력과 만족도 파악

설정 목표	현재 수행능력 (10점 척도)	만족도(10점 척도)	6주 후 기대점수 (10점 척도)
의자에 올라앉기	4	2	9
	의자 잡고 엎드려 잡기까지 가능하나 팔을 짚고 다리를 분리해서 들기 어려움	바닥에 앉으면 자세가 좋지 않아 음식 및 음료 섭취, 옷 갈아입기 등의 활동이 어려움 의자에 앉혀두면 나는데 아이를 들어앉히기가 점점 힘들	엄마 감독 하에 스스로 올라가 앉기

3) 목표 활동 제한 원인 및 아동의 장점 파악

설정 목표	제한 원인	아동의 장점
의자에 올라앉기	양팔을 밀어 몸을 들어올릴 근력은 있으나 유지 및 조절 능력 부족 다리를 딛고 선 상태에서 체중 이동 및 분리된 움직임 제한	공 놀이 좋아함 표현은 어려우나 지시 이행 가능 양손의 잡고 당기기, 밀기 등의 움직임 가능

4)물리치료적 중재 계획

설정 목표	물리치료적 중재
의자에 올라앉기	벤치에 손 짚고 유지하기 벤치 잡고 팔과 다리를 펴기 벤치에 손 짚고 한쪽다리 들어올려 공차기 벤치 잡고 돌아 앉기 훈련

5)치료 외 시간 중재 적용 및 보호자 의견 수렴

설정 목표	치료 외 시간 중재(가정활동)	보호자 의견
의자에 올라앉기	저녁 활동 시간에 의자에 올라앉기 훈련(한쪽 다리 잡아 고정 시켜주기)	컨디션에 따라 수행 여부가 달라짐

6)재평가(6주 후)

설정 목표	변화된 수행능력	변화된 만족도	설정된 기대수행 능력
의자에 올라앉기	4->8	2->7	9
	엄마 감독 하에 10회 중 7~8회 수행 가능	불안하지만 도와주면 가능해져서 만족스러움	엄마 감독 하에 스스로 올라가 앉기

(3)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조도구 종류

① Assistive technology(보조 공학) 이란

-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공학 기기, 보조공학 서비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학문 분야 등을 의미
- 보조공학 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s)란 장애인이 과제나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쉽고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장애인의 기능적인 능력의 개선, 유지, 확대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 및 생산 시스템

② 뇌병변,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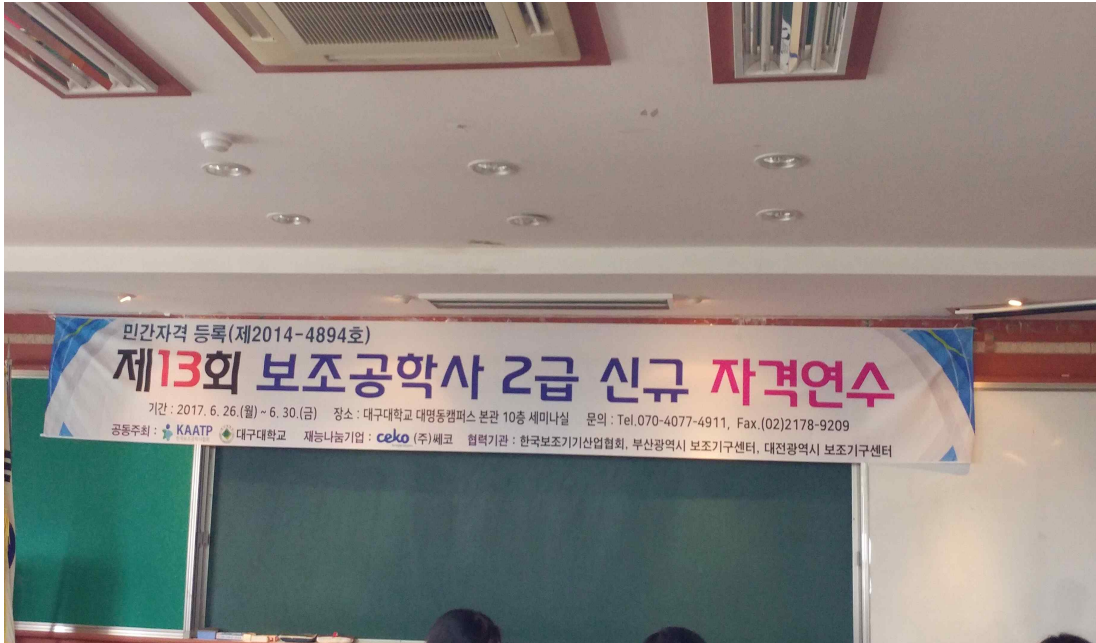
- transfer equipment, wheelchairs ,orthotics, strollers, specialised seating, mealtime aids, walking aids, standing aids, communication aids, speech generating devices, sleep systems, household tasks, seating and positioning, computer software and accessibility, school chairs and tables, modified gym equipment, switch toys, toileting and bathing aids, switches and mounting

③ 뇌병변, 지체장애 아동의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적절한 보조도구를 사용하도록 함

4. 결론

본 교육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로서 질 높은 최신 근거를 중심으로 임상 의사결정을 하고 케이스에 따라 실제로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normal development부터 시작해서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구 중 장애아동의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분류하고 각 평가도구에 대한 사용법과 임상적 활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하였다. 특히 본 교육에서 좋았던 점은 특정 치료 기법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적절한 평가도구 선정부터 이를 통한 기능 평가와 치료 접근을 하고 임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교육을 토대로 아동별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예후를 측정하여 예후를 바탕으로 목표지향 중재(goal-directed intervention)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진전 정도에 따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수립하여 중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주 최		대구대학교, 한국보조공학사협회
기 간		2017년 06월 26일 ~ 06월 30일
장 소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10층 강당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 2팀
	명 단	전진영, 임주성
	인 원	총 2명
교육	일 자	총 5일
시간	시 간	총 45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1. 보조공학의 기초

1) 장애인의 이해

장애에 대한 개념은 과거 개인적인 비극에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공동체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산업 재해 및 교통사고, 안전사고, 의료기술의 발달, 초고령사회의 진입 등을 이유로,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퇴행-분노-불안-우울-수용 단계의 심리적인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지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장애를 포함하지 못하고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그 유형에 따라 15종류로 구별하여 그 등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체장애는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의해 사지나 몸통의 기능에 나타난 영속적인 장애를 의미하며,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TBI, CVA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의미한다. 뇌성마비는 운동패턴에 따라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운동실조형, 강직형, 진전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마비 부위별로 단마비, 편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 하지마비, 양마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각장애는 시력이 0.2 이하이거나 사야가 10도 이하 혹은 1/2 이상 손실된 것을 말하며, 시기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진행정도에 따라 급성과 진행성으로, 교육적 견해에 따라 실명 및 맹과 교육적 저시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각장애는 60dB이상의 청력손실이나, 각각 80-40dB 이상의 청력손실, 명료도가 50%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손실시기에 따라 언어 전·후 청력손실로, 청각기관 손상부위에 따라 전음성, 감각신경성, 중추성, 기능성, 혼합성 청각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장애는 언어의 수용·표현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나 조음능력이나 유창성이 부족한 경우나 기능적 음성장애를 지닌 경우를 의미하며, 말장애로 조음장애와 유창성 장애, 음성장애, 언어장애로 실어증과 단순언어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적 기능에 따른 분류와 지원정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되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장애는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조현병, 조울증, 불안장애, 인격장애, 성장애, 알콜/약물의 남용 및 중독, 아동 및 청소년 정신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하며,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 급성신부전, 신증후군, 급성신우신염, 신장결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호흡곤란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선천성 심장병, 류머티스성 심장병, 심근질환, 부정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을 말하며, 만성 기도폐쇄, 만성 환기장애, 만성 폐혈관 질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 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나타나며, 잔여간기능 검사인 child-pugh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1~5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체적 장애보다 심리사회적 위축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코의 형태와 변형부위의 영역에 따라 급과 호로 분류한다. 장루·요루장애는 배변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나 장루/요루 시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인관계나 취업 등의 사회활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질장애는 뇌전증으로 인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차적인 부상의 우려가 크며,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급(중증/경증)					
			1	2	3	4	5	6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U/E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정신						
※ ‘중증’은 음영  ‘경증’은 빈 칸  ‘등급없음’은 사선  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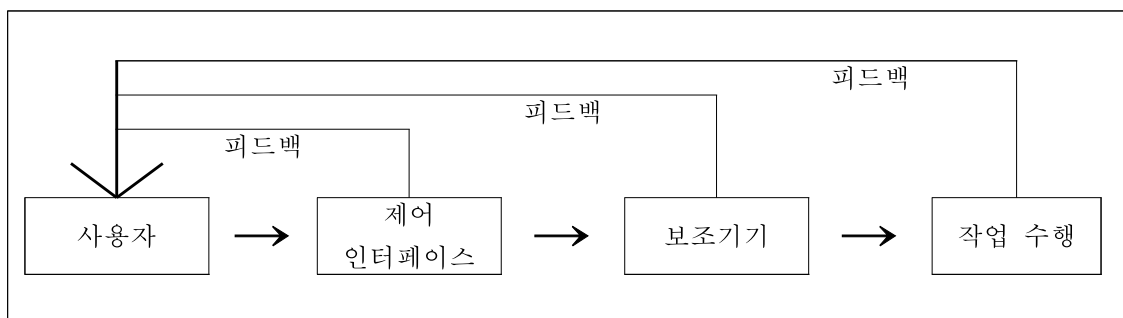
2) 보조공학의 이해

보조공학은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기구, 서비스, 보상방법, 실습을 통해 착상 및 응용하여 개선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공학에는 일반적인 물리적 하드웨어뿐 아니라 보조공학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있다. 하드웨어인 보조공학기기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이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장치나 제작 도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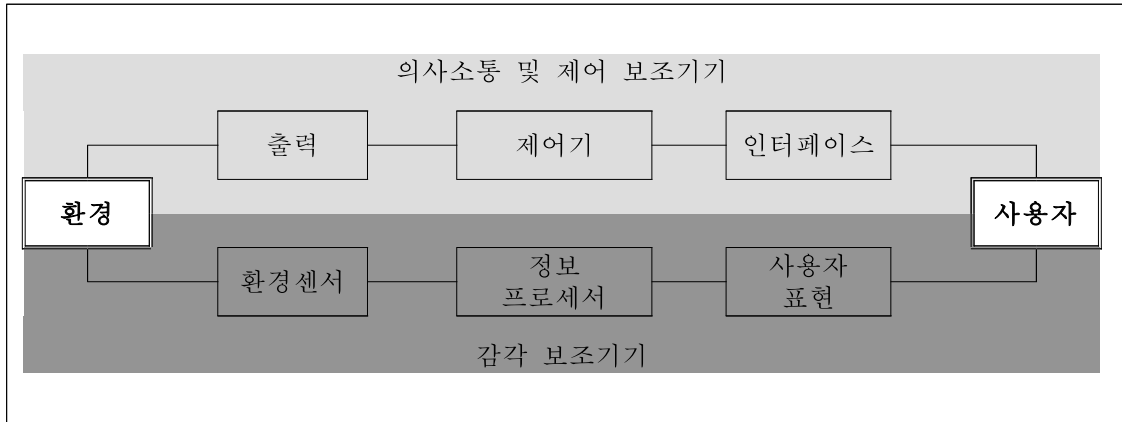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인 보조공학서비스는 장애인과 관련된 보조기구의 선정, 구입, 사용 등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기능 평가, 구매/임대 서비스, 선택·개조·응용·유지·수리·교체, 중재서비스 조정, 이용인의 기술적 훈련, 고용주 대상의 기술적 훈련 등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보조공학은 평가에서 시작하여, 개발하고 적용하여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순서를 포함한다. 따라서 보조공학은 그 제공방법이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특수교육공학(Special Education Technology), 재활공학(Rehabilitation Technology), 재활엔지니어링(Rehabilitation Engineering), 테크니컬 에이드(Technical aid)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 되고있고, 이를 통해 보조공학 제공에서도 컴퓨터 대체 접근이 많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대체접근을 이용하는 장애영역은 지체와 시각장애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체접근을 위해서는 선택세트를 구성하여, 선택방법과 입력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선택세트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항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자·그림·음성·사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선택세트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의 필요와 기능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택방법에는 제어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것으로 직접입력과 간접입력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직접입력으로 사용자의 행동이 한 항목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 직관적이며 쉽지만, 난이도가 높고, 힘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직접입력이 어려울 경우, 고려하는 것이 간접입력 방식이다. 스캐닝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스위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미세한 근육활동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관찰력과 집중력, 순차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공학을 이용하기 위해 조작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 하며, 제어 인터페이스는 보조공학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가 작동하거나 제어하는 실질적인 하드웨어를 말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 인터페이스는 통합된 것도 있으며 분리된 것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어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거쳐 입력된 내용은 사용자를 통해 활동으로 나타나고 이로써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보조기기에는 전자 보조장치 또한 사용되게 되며, 감각 보조기기와 의사소통 및 제어 보조기기로 나누어 상호작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 보조공학의 평가

보조공학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욕구 뿐 아니라 보조기구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정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치수나 만족도 평가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조공학의 평가에서는 인간, 활동, 보조공학,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보조공학은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공학의 중재 효과를 만족도나 일상생활에서의 개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분류		평가명
판별검사		덴버발달검사 2판,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검사
기능평가	ROM	관절가동범위 검사
	MMT	도수근력검사
	손기능	젍슨 손기능검사, 그루브드 페그보드 검사, 박스 앤 블록 검사, 퍼듀 페그보드 검사, 미네소타 민첩성 손기능 검사
	신체조절	체간조절검사, 기능적 뻗기검사, 버그 균형척도, 손가락-코 검사, 수정된 애시워스 척도
	인지·지각	비운동성 시지각검사, 로웬스타인 작업치료 인지검사
서비스 성과 평가		기능적 독립성 측정, 캐나다 작업수행측정, 심리사회적 영향 척도, 퀘벡 보조공학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

2. 보조공학 분야의 이해

보조공학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물질적인 보조도구를 포함한 유무형의 지원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면, 정보접근, 의사소통, 착석과 자세 유지, 이동, 일상생활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학습, 고용, 운전 등의 이동권 보장, 스포츠와 같은 여과활동 등에 대한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1) 정보접근 보조공학 서비스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정보접근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마라케시 조약이나 UN/ESCAP 행동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정보접근 보조기기로 지칭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 보조기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도 적용이 되어있으며,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이나 문자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보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류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보조기기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장애군	분류	제품
지체/ 뇌병변 장애	입력기기	조이스틱·트랙볼·헤드·입술·안구 마우스 확대·미니·분리형 키보드 스위치와 스위치
	입력 보조장치	타이핑 스틱·키 가드·마우스 스틱
	정보접근성 환경조성	높낮이 조절책상·모니터 이동보조기·팔 받침대
시각 장애	화면 확대	휴대용·이동용 독서확대기·화면확대 S/W
	음성 지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데이지 플레이어· 화면낭독프로그램
	점자 출력	점자디스플레이·점자 라벨기·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스마트점자기기
청각 장애	음성 증폭	무선음성증폭기·골도헤드셋·보청기·골도전화기
	영상 정보	영상전화기·신호알림장치·보완대체의사소통보조기기

2) 의사소통 보조공학 서비스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공학에서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구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따라서 구어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체계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역량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메시지 수용뿐 아니라 출력 방식에서도 음성합성 방식과 시각적 출력방식,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소통 기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용능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선택방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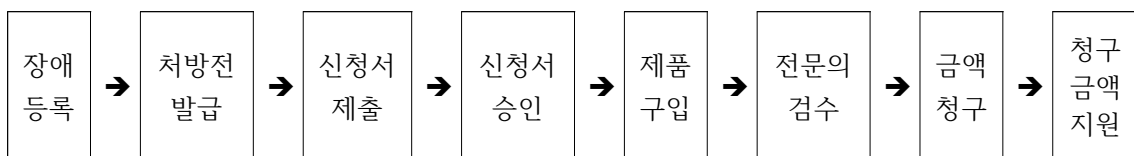
기술 정도	제품
로우 테크	안면형, 동작형, 신체긴장도 변화형, 성인 의존형
라이트 테크	목걸이 사진, 의사소통판, 선택판, 눈-응시 대상물, 소도구
하이 테크	AAC 도구, 마이토키, 오케이톡톡, 키즈보이스, 워드톡, 의사소통 오버레이

장애군	제품
시각 장애	화면확대 S/W, 화면낭독프로그램, 점자정보 단말기
청각·언어 장애	보청기, 골도전화기, 영상통화기, 의사소통 보조기
지체·뇌병변 장애	터치스크린, 킹 키보드, 손바닥 마우스, 헤드마우스, 스위치

제어 인터페이스로써 의사소통 기기를 선택하는 기법에는 직접선택과 간접선택으로 구분된다. 직접선택은 도구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활성화·해제활성화·평균활성화 등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간접선택은 직접선택이 어려워 스위치 등을 이용해야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스캐닝을 통해 선택하게 된다. 스캐닝에는 원형·선형·집단 항목으로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있고, 전략으로는 자동·단계적·반전 스캐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착석과 자세유지를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착석과 자세유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자세조절과 변형관리, 압력관리, 편안함 및 자세조정이 있다. 자세변형과 욕창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착석 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자세 보조기구는 일정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세 보조기구에는 그 구성형태에 따라 모듈러형과 몰딩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개선하여 역동형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구성형태는 사용자의 착석 능력과 지지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형태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며, 신체의 정확한 사이즈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이동 보조공학 서비스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이동에 대한 제한이 강조되고 있다. 이동은 단순한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에서 더 나아가 신체적 극복을 통한 자기개발, 교육, 노동, 여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동보조기기의 경우, 앉은 자세에서의 지지와 환경에서의 이동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장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동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동 보조기기 사용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전방·후방전도	육창발생의 증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하지 골다골증 발생	고관절·슬관절 굴곡구축	
의존도 증가	무용성 위축	

분류	제품
보행 보조기기	헤미·지그재그·2단·구동위커 보행차(실버카-클레이터) 지팡이, 크러치
수동 휠체어	스포츠형, 특수형, 활동형
전동 휠체어	스탠드형, 틸트형, 리클라이닝형, 수전동 허브모터형, 기능복합형
전동스쿠터	전동스쿠터

5) 일상생활 보조공학 서비스

일상생활은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신변처리, 운동, 의사소통, 가정 관리,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은 형태나 빈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B-ADL(P-ADL), I-ADL로 구별할 수 있다. 보조공학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회복이 아닌 보조와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신체적 제한 완화이나 안전 보장, 관절손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목적	제품
옷 입기	Reacher, Dressing stick, Sock aid, Button hooks Zipper aids, Velcro
식사 및 주방 보조	Curved/Swivel spoon, Rocker knife, Built-up/Weighted handle Utensil holder, Flexible utensil, Universal cuff Plate guard, Scoop dish, Suction base, Nosey cup Non-slip mat, Paring board, Zim jar bottle opener Suspension sling, Friction feeder
개인 위생/신변처리	Elevated toilet seat, Commode chair, Bath lift, Shower trolley Grasp bar, Bath side rail, Long-handle/Curved/Suction brush, Bath mitt
학습 보조	Loop scissors, Writing aid, Multi reading 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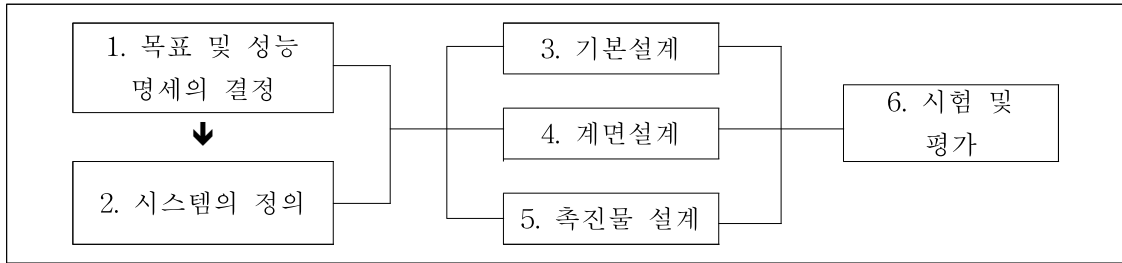
장애군	제품
시각장애	확대경, 전등, 방향표시법, 스피커폰, 환경조정
청각장애	보청기, TV 자막 수신기, 도어노크센서
지적장애	사진기반 레시피, 사용방법사진, 운동동영상, 인과 각성 시계

3. 보조공학 제품의 개발

1) 보편적 설계와 제품 설계

모든 제품은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인간을 배제한다면 실패한 제품이 된다. 보조공학에서는 더욱 그 중심에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를 너무 고려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불편한 제품들도 있다. 따라서 장애와 비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 설계(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공평한 사용, 융통성 있는 사용,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식 가능한 정보, 사고나 잘못된 포용,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제품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품 개발과 설계에서는 생산된 제품의 목표와 성능을 결정하고 시스템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기본설계로 제품의 틀을 구성하고, 계면설계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촉진물 설계로 사용 시의 보조품을 계획하게 된다. 이후, 시험 및 평가를 통해 제품의 사용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자의 인간정보를 측정하여 반영하게 된다.



제품의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조작하기 위한 조작기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작기의 설계 시에는 인간의 행동 특성과 인지적 설계를 반영하여 코딩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딩에는 위치·라벨·색채·형상·크기·촉감·조작방법 코드화가 있으며, 이러한 코드화를 통해 조작의 직관성·가시성·편의성·안전성 등을 확보하게 된다. 인지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좋은 개념의 인지모형이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하고, 가시성이 뚜렷하며, 모든 입력에 대한 피드백, 양립성의 고려, 제약과 행동 유도성, 오류 방지를 위한 강제 기능, 안전설계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하고 직관적인 조작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표준화와 재활보조공학 산업

보조공학기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있어 표준화는 중요하게 간주된다. 표준화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의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말하며, 제품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제품의 호환성, 마케팅 및 생산가 절감, 제품설계의 기준, 품질테스트 기준을 위해 필요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활보조기구는 손상된 부위를 보완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줌과 재활능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사회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환경에서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며, 적절한 기술을 통한 기능수준의 보조로 사용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사용자, 양 방향 모두에 재활보조공학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재활보조공학기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 유출 및 소비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주무부처의 분산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재활보조공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 강화와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3. 보조공학 적용 분야

1) 고용과 보조공학

보조공학은 인지 및 학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고용 및 운전, 여가 및 편의시설 이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적·자폐성·학습·치매 등의 문제로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공학적 접근을 통해, 단순화, 프롬프팅, 상황 안내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총 장애인구 중 후천적 장애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도 같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양 측에 법령으로 지정된 34종의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고 있다. 고용환경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는 취업활동의 기회가 확보되며, 고용주에게는 지속적인 고용 유지, 장애인 직원의 생산성 증가, 직업안정의 도움 등의 편익이 나타나게 된다.

2) 자동차 보조공학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위해 취득하는 운전면허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이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신체의 상태에 따라 운전면허의 종별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건부과기준으로 보조공학기기가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시야 및 시력, 전방응시력, 주의력, 속도-거리의 시지각 능력, 지적능력, 상황판단력 등이 필수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수요소를 만족하게 되면, 운전을 위한 차량의 조작을 위해 보조공학기기가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적인 차량 선택에서 장애인이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면 그 조작 등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나 형태보다 자신의 장애·신체 특성에 적합한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차량이 준비된 이후에는 좌석시트, 핸들, 엑셀/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안전벨트, 에어백, 자동변속장치, W/C 수납공간 등이 고려해야 하며, 보조기기로써 탑승-탑재-운전 보조기기의 설치 및 사용이 고려된다.

3) 장애인 스포츠와 여가활동

여가는 심리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가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는 치료수단으로써, 레크리에이션 및 심리학적 가치로써,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활동을 위해 지도할 때에는 장애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장애유형별 고려사항

시각장애	청각장애	절단장애
위험성 최소화	시각·촉각·근육감각을 통한 의사소통 및 교육 수단 개발	보조기구와 피부접촉
타 감각기관 활성화	과장된 표현 자제	염증
규칙적이나 다양한 활동	협응성·리듬감 향상	균형
새 사물의 정렬과 위치 확인	간단한 수화 습득	이동
새 환경의 인식	글로된 지시사항 사전 제작	피로감
분명한 언어적 교수		운동 조절
운동근육 감각적 접근		과보호
호각의 다양한 사용		

척수장애	지적장애	뇌성마비
혈액 순환	성공가능 목표 선정	감각운동을 통한 정상 운동 양식 유도
과잉 반사	다양한 전이 기술	
구축 및 경련	짧고 간단하며 반복된 언어수준	점지적 훈련
뼈의 이상부위 형성 사 전 확인	성공에 대한 칭찬	잠재 신체능력의 발달
수중운동	적절한 집중시간	
넓고 평평한 바닥		중복장애 고려
소화기 및 비뇨기	감각자극의 사용	

4) 장애인 편의시설

생활환경의 개선은 무장애 환경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에 대한 식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통합과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시된 배리어프리 디자인은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써, 모두에게 공평한 도시 및 건축환경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으로 반복된 설치가 증가하면서 전체 구성원의 피로도를 높이고 비효율적이 되면서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개념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접근으로 포용성이란 측면에서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보다 사회지향적이며 평등과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러한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이 연령이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전 생애과정을 거쳐 다양성을 수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이번 보조공학 교육연수를 통해 기능향상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연계된 부분으로써의 보조공학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관하는 다양한 이용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보조도구의 추천이나 응답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충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제작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간단한 보조도구의 제작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차후 제작 시에도 안전하고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보조도구 이용에 대한 문의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인의 문의가 있을 경우, 더욱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기능향상에 목적을 둔 재활보조도구로서의 제작 및 추천, 사용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보고서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7.09.05.(화)~09.06.(금)
장 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김효중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8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뉴미디어와 문화예술교육

뉴미디어 시대, 매체를 대하는 태도 / 감성정책연구소장 최창희 소장

1. 뉴미디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1) 백남준이 언급한 ‘테크놀로지에 대응하는 방법’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더 발전된 최첨단 기술환경에서 기술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
- 기술을 통해 상상하는 방법
- 기술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

2) 뉴미디어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은 기술이 아닌 예술에 대한 교육

- 인간과 기술, 나아가 인간과 대상과 관계하는 방법

2.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1) 뉴미디어와 예술의 의미는 기술이 아닌 예술에 대한 사고

- 인간은 유희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

II.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기획자의 자세

/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효과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 장르중심의 예능교육보다는 체험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예술교육을 지향

2)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의 활용과 향유력 증진
- 창의성과 상상력 및 통합적 사고의 계발
- 리더십과 협동심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
- 자아표현과 소통능력 배양 및 인성교육에의 활용

2.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분야

1)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

- 전국 초중고 40%에 이르는 4,700여 개의 학교, 3,500명 예술강사 파견
-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제공

ex)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명예교사 프로그램 운영, 유아 문화예술교육 시범 지원사업

2)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 소외계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지원
- 거주지역 기반 따뜻한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기회확대

ex) 예술강사 지원대상 확대, 정부부처 협력을 통한 군/교정시설 지원사업,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청소년 창작활동 지원사업,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Ⅲ.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관련 실무교육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임은경 대리

1. 정산보고서 작성 안내

1) 제출서류

- 공문,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정산방법 및 세부내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보조강사 운영 관련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통장기장내역 전체 사본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7년 12월 29일(금)까지
- 제출방법 : 우편제출

2. 작성보고서 Tip

- 1) 필요한 서류 제출
- 2) 세목별지출순서에 따라 차례로 영수증이 정리
- 3) 예외적인 집행 건이 있을 경우 관련근거서류도 함께 제출
- 4) 예산계획대로 잔액 없이 집행이 완료
- 5) 지출건별 내역이 명확한 보고

IV. 소감 및 제언

뉴미디어와 예술 즉 인간과 로봇의 조합으로 기술과 예술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기획자의 자세’ 강의를 들으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의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장애인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큰 의의에 바탕을 두고 이용인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새로운 분야로 연극을 장애인들에게 시도하였는데 이용인분들이 담당자의 염려와는 달리 너무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 문화예술은 분야는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V. 사진 자료



2017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연수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1박 2일
장 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박은영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7. 11. 15(수) ~ 11. 16(목)
	시 간	8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7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연수

I.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 방법

1. 발달장애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법에 따라 장애 범주가 변화하였음. 발달장애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2가지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동반되며 자기관리,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주도, 자립생활역량, 경제적 자족 등에서 3가지 이상 기능적 제한이 있음. 따라서 다학제적이며 포괄적으로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는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 조정된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를 반영해야 함.

2. 발달장애인 현황

발달장애인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아동기보다 성인기의 비중이 높음. 또한 지적·자폐성장애 둘다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지역이 21%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1) 현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발달장애 대상 서비스는 무상교육,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 등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실정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0.8%이며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정보를 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 비용 부담,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공기관이 동네에 없어서 등을 뽑았음. 이에,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①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②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 ③다양한 유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행정의 초월, 다기관적 협력, 다학제적 네트워킹 등이 필요함.

2) 평생교육과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받고 싶은 교육은 크게 기초자립생활, 지역사회생활, 기능적 학업, 직업생활, 여가·문화, 지원서비스 등이 있음. 이에 따른 교육과정은 표1, 표2와 같음.

구 분	내 용
개인생활	개인위생관리, 정리정돈, 위험에 대한 대처, 성인식
가정생활	가족의 이해, 가족돕기와 요청, 전화걸기와 받기, 친지와 가까운 이웃, 성역할
지역생활	지역사회의 특성, 주요장소와 기능, 교통수단 사용, 예절바른 대화, 지역사회 이용, 소득과 지출, 진로와 직업, 성예절

표 1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 내용

구 분	내 용
기초문해	한글문해, 한글생활문해
학력보완	초등·중등·고등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기초직업교육, 전문직업교육, 자격인증
인문교양	사회재활, 생활소양, 인문학적 교양
문화예술	여가 스포츠,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숙련
시민참여	시민의식, 시민역량, 시민활동

표 2 6진 분류에 따른 내용

II. 충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성과 “꿀잼프로젝트”

1. 사업 규모

꿀잼프로젝트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지역의 만 여명의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실현을 위한 광역 네트워크 연계사업임.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6. 08~2019. 07(3년)
소요예산	1억 원×3년=3억 원
사업형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 공동진행 -보은, 옥천, 제천, 단양, 괴산, 음성, 영동, 증평, 진천, 청주(2개), 충주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부 프로그램 권역별 진행(북부, 중부, 남부)
재정후원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사업 개요

1)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의미 있는 하루”를 제공하며 사회적응능력 및 자기결정권 향상을 도모함.

2) 중점추진방향

각 영역 프로그램을 당사자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당사자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함.

3) 사업수행절차

당사자회의→프로그램 결정→사전활동→프로그램 참여→사후활동

4) 사업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이용인 상담지원	진단사정	진단도구 : 지역사회적응검사 설문지 : 삶의만족도, 사회적지지, 우울	개별 1회
프로그램 운영	신체기능 향상교육	다양한 스포츠 활동 선택, 운영	월4회(총12회)
	여가활동 능력향상교육	여가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적응 능력향상교육	기본과정으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향상 운영	월4회(총12회)
	지역문화탐방	권역별 교류 및 지역 내 시설 이용	연1회(3개 권역별 운영)
	장애인식개선 계몽활동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연1회 (지역주민대상)

3. 사업 성과

1) 양적 성과

16년 8월~ 17년 7월까지 참여인원이 총 11,597명(실인원 247명)이며 5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었음.

기관	실인원	세부사업
괴산	각 기관별 15~35 명	건강체조, 합창교실, 사회적응(기본생활, 사회자립, 직업생활)
단양		댄스교실, 탈춤교실, 나도요리사, 정보화교실, 만들기세상
보은		줄바댄스, 볼링교실, 핸드아트, 요리교실, 사회적응
영동		댄스교실, 연극교실, 정구교실, 공예교실, 사회적응
옥천		특수체육, 태권도, 댄스교실, 오감교실, 사회적응
음성		모델, 먹공예, 여가프로그램, 사회적응
제천		공예활동, 전통무용부채춤, 냅킨종이아트, 배드민턴, 볼링교실, 노래교실, 난타교실, 사회적응(요리, 일상생활)

기관	실인원	세부사업
증평	각 기관별 15~35 명	줄바댄스, 스피닝, 미술교실, 사회적응(일상생활 등)
진천		생활체육, 도예교실, 합창교실, 사회적응(요리활동, 문화체험 등)
청주		방송댄스, 요가교실, 볼링교실, 사회적응(자립생활 등)
혜원		댄스교실, 드라이플라워, 사회적응(지역사회시설 이용 등)

2) 질적 성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12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 “꿀잼프로젝트” 이용인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우울 등의 3영역에서 1:1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59명이 응답하였음. 설문 결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영역에서는 대체로 사후검사 결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우울은 사업 수행기관 중 절반의 기관만이 실시하여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한적이나 사후검사결과 7.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짐.

4. 공동사업 의의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여 개발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선택, 결정, 참여로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계와 협력, 그리고 지역 장애인복지관 관련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협력을 통하여 담당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애로점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었음.
- 충북 내 장애인복지관의 공동사업으로 1차년도 당사자 부모, 12개 복지관 사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분석, 평가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개발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음.
-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충북 복지정책으로 제안을 노력함.

Ⅲ.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1.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에 시행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또한 서울시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이 흔들렸음. 이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2. 복지관의 변화

성민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의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음.

- ①직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고객에 대한 평가
- ②다양한 문헌 리딩, 학습 조직활동을 통한 생각정리
- ③관점의 변화(장애 당사자, 당사자와 가족의 삶, 강점중심)
- ④변화된 생각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 재정리하기
- ⑤사업의 변화(당사자 자모임 확대, 장애수용 사업 신설 및 가족기능사업 강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사업 확대, 개인 강점확대를 통한 성과, 프로그램 접근방법의 변화)

3.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20~60대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주거와 미래보호자, 재정문제가 포함된 미래계획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장애자녀가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는 시기임. 또한 직업훈련 후 능력에 따라 직업생활을 시작하나 직업생활의 불안정과 미취업에 따른 경제적 의존이 지속되는 시기임. 결혼과 성에 대한 욕구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많은 시기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환경이기에 성민복지관은 당사자 삶과 가족의 삶을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고민하여 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음.

- ①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히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적극적 연계
- ②직업유지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적 지원
- ③일상생활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④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약물관리 등의 의료지원
- ⑤성인기 필요 서비스 확충(뷰티, 헬스, 결혼장애인 위한 서비스, 문화여가)
- ⑥안정적 주거 확보 위한 계획 및 서비스 참여, 주거 전이
- ⑦장애인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유산상속, 성년후견 등의 법률적 고려
- ⑧성년후견제 이용을 통한 권익보호 및 삶의 질 보호

4. 평생교육 계획

평생교육을 계획 할 시에 장애정도에 대한 객관적 수용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도 및 문화여가생활에서의 활용성을 파악해야함. 또한 당사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사회성 증진, 긍정적행동을 촉진하고 자기결정력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함.

5. 평생교육 실천사례

구분	내용
사전활동	장애수용교육 ‘난나교실’
평생과정설계	발달장애인 아카데미(당사자, 보호자, 조력자 대상)
주거	생애주기별 자립생활 프로그램, 독립준비생활관 체험, 주거체험
교육	자기옹호, 로고 공모전, 교양대학, 내일로 기차여행, 자립대학, 고용확장 사업, 당사자 자조직활동, 사진 이야기 및 당사자 대회
문화	SMBT농구, 뽀빠이 역도부, 체육활동, 위대한 하모니 오케스트라, 디자인아트 수업
결혼	결혼이야기, 데이트 기술향상, 결혼이야기공모전, 결혼인식행사

IV. 장애성인 생애 특화프로그램 개발

1. 개발 배경

학령기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성인기를 더 빨리 맞이하게 되므로 성인기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중심모형의 특화된 생애프로그램이 절실하여 개발하게 되었음.

2. 개요

1) 사업목표 : 장애성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역량 강화

2) 비전

-장애성인 측면 :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기술 습득, 수료 후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가족지원 측면 : 장애자녀의 권리증진 및 지원을 위한 부모형제의 역량강화

3) 추진전략

-평생교육원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팀 구성

-운영관리산하 자문위원, 교육관리위원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점검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기여

4) 구성인력 : 기획 및 운영책임자, 행정팀, 프로그램 운영팀(주강사, 부강사, 자원 봉사자 각 반 2인), 평가사, 부모상담 담당자, 시설 점검 및 지원팀

5)사전평가 : 초기 면접 시 프로그램 적절성 및 활동수준 평가를 위해 수용어휘력검사, CIS-AⅡ, 그림직업흥미검사,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 퍼듀팩보드, 상담, 행동관찰 등 사전평가가 진행되었음.

6) 세부프로그램 : 기초생활문해, 자조모임, 직업준비, 직업기능, 생활체육, 요가, 인권강사양성과정, 행복한 부모되기 등

3. 운영전략

- 1) 대학의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 활용
- 2) 특수교육전문가와 강좌 프로그램 강사간 협력적 접근 및 멘토링
- 3) 수요자 요구 및 진행상황에 따른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 4) 또래 지원을 통한 생활연령에 적합한 활동 학습
- 5) 경력 단절된 장애부모의 사회적 참여 기회제공

V. 결론 및 제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기에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이에, 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남동아카데미 이용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여 이용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매뉴얼 보급 및 역량강화 교육



주 최		인천광역시, 노틀담복지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 간		2017. 12. 19. (화) / 1일간
장 소		노틀담복지관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윤혜림, 김서영
	인 원	2명
교육 시간	일 자	2017. 12. 19. (화)
	시 간	13:00-18:00 (5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매뉴얼 보급 및 역량강화 교육

● 긍정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1) 긍정행동지원의 개념

-긍정행동지원(이하 PBS)은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도전행동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사회적·교육적·의학적·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폭넓은 접근법으로 정의(Dunlap and Garr, 2007; 이소현·박은혜, 2012에서 재인용)

-PBS는 기존의 전통적인 행동지도방법, 특히 행동수정을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적 접근, 체벌중심 또는 혐오자극 중심의 접근(꾸중하기, 타임아웃 등), 환경적인 요소의 무시 등 비인간적 지원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타남

-PBS는 과정 중심적 접근, 긍정적 지원의 개입, 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적인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긍정적 지원: '긍정적'이란 혐오자극 대신에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행동방식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하는 기술에 대한 학습으로의 지원을 의미함

2) 과정 중심적 접근: 도전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도전행동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가설(이소현 외, 2008; Linda et al., 2005)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지원임을 의미함

3) 환경적 요소의 고려: 도전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도전 행동의 감소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PBS의 목적은 긍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및 더 나아가 환경의 능동적인 통제 능력의 향상이며 그것을 통하여 환경 속에서 자기결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PBS는 도전행동을 대체할 대체기술의 습득과 함께 의사소통 기술, 사회성기술, 자기관리 기술, 자기결정 기술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유환조, 2015)

(2) 긍정행동지원의 요소

-PBS는 도전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실재를 기반으로 하며 행동·인지·사회·발달·환경·심리학 등 모든 행동과학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증거 기반의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함(응용행동분석)

1) PBS는 실제적으로 다중요소적인 개입으로 구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입이 투입되어야 함

2) PBS는 아동 또는 성인의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단지 도전 행동의 감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거, 사회적 활동 등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학습하도록 영향을 미쳐야 함을 의미함. 이것을 위하여 행동지원이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효과도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이동석 외 2016)'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함

-PBS는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체제'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음. 즉 행동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특정 현장(예:교실, 치료실)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관련 요소(물리적환경, 예산, 문화적기대, 사회적 정책 등)에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사회적 모델에 따른 통합)

(3) 긍정행동지원의 개입 모형

-긍정행동지원의 대표적인 개입모형으로 '기관차원의 긍정행동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학교 또는 기관 내 모든 장애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활동환경과 개별화된 행동지원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음(이호현·박은혜, 2012; Sugai and Homer, 2009)

-‘기관차원의 긍정행동지원’은 특정 교육프로그램이나 개입프로그램이 아니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개인 및 관련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모형임

-‘기관차원의 긍정행동지원’은 세 가지 차원의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보편적지원

:1차 예방 차원의 개입으로서 기관 내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기관 전체의 체계나 분위기, 문화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행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2) 소집단 지원

:2차 예방의 단계는 1차 예방인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전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기관에서 어려움을 보이거나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개입하는 지원을 의미

3) 개별적 지원

: 개별적 지원은 3차 예방 단계로 1, 2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소수 이용자들을 위해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긍정행동지원 절차에 따른 원칙과 가이드 라인

(1) 원칙: 개인 각각을 지원(needs)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도전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함

(2) 도전행동의 사정

:사정과정은 행동발생의 원인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 접근법 사용/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행동의 기능이 명확치 않을 경우 초기사정부터 시작하여 추가사정 실시/ 가능한 한 빨리 행동지원계획 작성

- 모든 절차의 중심에 이용자가 있어야 하며, 이용자는 사정 과정 내내 지원을 받아야 함
- 이용자, 가족, 지원자는 사정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여야 함
- 사정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보다 복잡하고 집중적인 사정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준을 이해 하여야 함
- 도전행동을 야기하는 현재 및 과거의 모든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 사정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과정임. 왜냐하며 행동을 촉진 또는 유지하는 요인들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임.
- 행동의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며 사정은 다시 재검토됨
- 사정은 도전행동을 감소시키는 성과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가족 구성원의 탄력성, 자원, 기술 등도 고려해야 함
- 행동지원계획을 집행하는 직원들의 역량, 지속 가능성, 헌신성 등도 고려해야 함
- 본인, 가족 등에게 도전행동 사정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
- 피드백은 개별화되어야 하고, 가족구성원,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등), 옹호인도 참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이 피드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3) 행동지원 계획

-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전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선제적) 전략
- 개인의 환경 및 일상 활동의 수정 적용사항을 찾아내는 전략,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대안적 행동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예, 의사소통 기술 향상, 감정 조절 기능의 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향상)
- 우울 등 초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개인을 진정시킬 수 있는 예방적 전략
- 예방할 수 없었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반응 전략
- 위험별 수준에 따라 행동지원계획의 효과를 고려한 위험관리 전략
- 의사소통 스타일: 시각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 수화 등
- 흥미와 관심: 선호하는 물품, 색깔, 장소
- 비선호: 싫어하는 물품, 색깔, 장소 등
- 도전행동: 도전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시간, 장소, 관련사람 등
- 대체행동: 도전행동 대신에 이용자가 학습할 대체행동의 내용, 방식 등
- 필요한 경우 신체적 개입에 대한 지원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지원계획 작성의 원칙

- 1) 지원계획은 가족, 돌봄 제공자, 직원의 위험관리 등 각종 능력 및 자원의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자원 내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함
- 2) 지원계획은 계획의 정확한 실천을 측정하는 정보의 지원을 받아야 함
- 3) 객관적 성과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모니터링 되어야 함
- 4) 처음 두 달 동안은 격주 간격으로, 그 다음부터는 매달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 특히 도전행동이 증가하거나 제한적인 개입이 증가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검토는 더욱 필요함
- 5)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가족,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현황을 잘 파악하여야 함
- 6) 지원계획 실행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각종 조정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확실히 선정하여야 함

(4) 효과적인 지원의 구성

-효과적인 지원의 실행 및 서비스 간 효과적인 이전을 위하여 실천흐름도를 개발 필요

- 1) 이용자 본인·가족 구성원·직원 등이 수정가능하고, 실천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2)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수용 가능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함
- 3)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이어야 함
- 4) 삶의 질 측정,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위해 정도 측정 등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실천흐름도 개발, 관리, 평가

- 1) 지원 실천흐름도 작동을 위해 명확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 2) 지원 실천흐름도 작동과 관련된 훈련 및 지원 제공
- 3) 지원 실천흐름도 실행 검토 및 평가

-이용자들의 욕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원 실천흐름도를 공동으로 개발

- 1)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목표
- 2) 합의된 목표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모든 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실천흐름도 개발

- 1)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의 이전을 최소화 함
- 2)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에게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대안 행동 제공
- 3) 지원 실천흐름도 내에서 서비스들이 수립되도록 함
- 4) 다른 지원 실천흐름도와의 연결지점을 명확히 함
- 5) 지원 실천흐름도 간 이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직원 지정 필요

-지원 실천흐름도의 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필요. 정보 공유 정책 수립

- 1)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그 가족, 돌봄 제공자 등과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 2) 의사 또는 다른 직원 등과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 3) 지원 실천흐름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들과의 정보 공유
- 4) 지원 실천흐름도 외부에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들과의 정보공유

(5) 지원 및 환경적 개입

* 부모 및 주변 지원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1) 교육은 집단 형식으로 진행. 개별 교육도 가능
- 2) 접근가능성이 높아야 함(예, 업무시간 외에 진행, 이용자 보호공간이 있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진행)
- 3) 행동지원 목표 및 지원방식에 대한 공유 및 협의
- 4) 이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에서의 지원방식
- 5) 1회기 90분 단위, 월1회 정도
- 6) 관련된 개입 매뉴얼에 따라 진행
- 7) 적절한 교재교구의 사용

* 자립지원 개입

-도전행동이 나타나 일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긍정행동지원실 기반 자립지원 개입

- 1) 활동설계 및 개발
- 2) 이용자를 위한 사회성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훈련
- 3) 행동전략에 따라 부모 및 돌봄 제공자들이 알아야 할 기술에 대한 훈련
- 4) 기관 내 타 프로그램 이용 시 프로그램 선생님을 위한 개입방법에 대한 훈련

- 개인의 흥미와 역량을 고려하여 낮 활동에 대한 구조화된 계획을 개발하고, 유지함: 행동의 영향을 계속 모니터하여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 등과 함께 논의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 도전행동에 대한 개입 및 행동지원

-행동원칙과 행동기능사정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시간을 보낼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개별화된 지원실천

- 1) 합의된 성과에 맞춘 명확한 표적 행동
- 2) 행동을 자극 또는 유지시키는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예를 들어 회피 행동에 대한 과업변경
- 3) 직원, 가족구성원, 보호자 등의 도전행동에 대해 반응
- 4)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표 즉시 강화할 수 있는 역량

5) 지원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시간표

-분노조절문제가 있는 성인의 경우 정신심리적 개입 필요

: 이 개입은 인지-행동 원칙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15-20 시간정도 실행

-개인의 감각 프로필을 확립하기 위한 기능사정을 시행하기 전에 Snoezelen rooms과 같은 감각 개입은 제공하지 않음. 감각 프로필은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즉각적 반응전략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앞서 보았던 사전적 전략과 함께 사용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에 초기 일시적 개입으로서 사용할 수 있음.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사전적 또는 선제적 개입을 도입하여야 함.(자신 및 타인에 대한 위해가 심각한 경우, 물품 파손이 심각한 경우)

-계획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 반응전략은 윤리성에 기반하여 시행되어야 함

(처음에는 가장 제한적인 개입을 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함.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 반응 전략을 계획하고 검토하는데 본인 및 가족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함)

-즉각적 전략의 일부로서 신체제한 개입은 반드시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신체제한 개입의 사용에 따른 신체적 건강문제와 생리적 급기 사항, 학대 경험 등과 같은 개입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근골격계 위험과 같은 신체 역학적 위험, 접촉에 대한 높거나 낮은 한계점과 같은 감각의 민감도)

-신체제한 개입의 실천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검토하여야 함(또한 실천과정 및 결과를 가능한 경우 본인과 논의하고, 가족 등과도 논의하여야 함)

-장기지원계획의 일환으로서 신체제한 개입의 필요성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신체제한 개입 이후에는 반드시 '신체제한 개입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함

-계획에 따른 신체제한 개입 시 준수사항(인권 관련 법률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신 또는 타인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함, 나타난 위험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신체제한 개입 등 즉각적 반응 전략의 안정성, 효과, 사용의 빈도, 사용 기간, 지속적인 필요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평가하여야 함(사건사고의 일환으로 개입을 기록하여야 함. 이후의 행동지원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학습을 위해 개인 및 기관 보고 절차에 따라 기록을 보고하여야 함)

* 신체적 건강지원

-건강검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1) 기존 또는 신규 도전행동에 대한 검토와 도전행동이 신체적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방식

2) 신체적 건강 관련 사항

3) 복용약물, 관련 부작용, 관련 참기 힘든 작용 약물 상호작용, 복용 정도 등 최근 모든 건강관련 개입 사항

4) 통증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합의된 지원계획

* 수면장애에 대한 개입

- 1) 수면장애에 대한 행동개입 구성요소(개입을 위한 수면장애 행동의 기능에 대한 분석, 구조화된 일상적 수면 시간 적용)
- 2) 행동개입 이후에 수면장애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수면을 위한 투약 중지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투약 가능함(발달장애인에 대한 투약 전문성이 있는 정신과의사와의 상담 이후 투약, 비약물 개입을 동시에 사용하고, 지속적인 약물 투여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함)
- 3) 수면을 위해 투약이 필요한 경우, 멜라토닌 복용 검토
- 4)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
 - 낮에 최소 30분 정도 햇빛 쬐기, 낮에 최소 30분정도 운동하기

* 가족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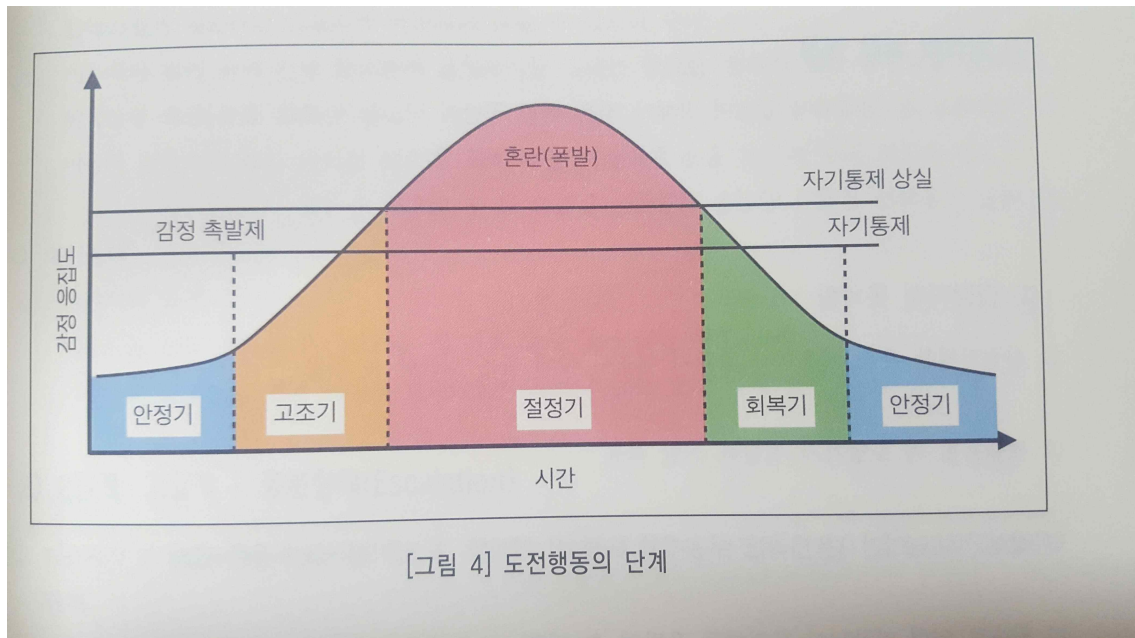
- 지원계획 수립 및 작성 시 가족 구성원 및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등)를 참여시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형식으로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 가족 구성원 및 돌봄 제공자에게 그들의 권리 내용 및 확보 방법에 대한 조언 제공(그들 본인의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사정, 단기 휴식 및 다른 레스파이트 지원)
- 가족 구성원 및 돌봄 제공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 1) 도전행동 발달장애인과 함께 삶으로써 또는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느 영향을 인지시킴
 - 2) 가족 옹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설명
 - 3) 도전행동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가족 지원 고려
 - 4) 가족 구성원 및 돌봄 제공자를 위하여 장애 특이적 지원 집단을 통한 공식적 지원 고려
 - 5)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개입에 참여시키기 위해 기술 훈련, 정서적 지원, 정보 등 제공
- 가족 구성원 및 돌봄 제공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확인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

(6) 평가 및 개선

- 평가: 삶의 질 측정,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위험 정도 측정 등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 효과적인 훈련과 수퍼비전: 기관은 직원들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과 수퍼비전 실시
- 초기평가 및 관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개인이 더 복잡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 기관은 개인이 전문가 평가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서비스에는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행동분석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교육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사, 소아과의사, 약사 등을 포함한 전문 인력으로 부터 제공되는 조언, 수퍼비전, 훈련 등이 포함됨

● 도전행동 단계별 지원전략에 따른 행동지원

(1) 도전행동의 단계별 지원전략



(2) 1단계 - 안정기

- 이용인의 감정수준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통제가 가능한 단계
- 안정과 예방이 최우선시 되는 환경 조성하기
- 안전한 공간 만들기
- 담당자의 옷차림 주의하기 (옷차림을 단조롭게 하여 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
- 선행사건 이해하기
- 실무자의 감정과 기분 이해하기
- 안전한 습관 만들기
 - 1) 이용인의 안전한 상황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 2) 이용인/실무자 : 일정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가까울수록 예민하며 45°각도에서 팔이 닿지 않는 것이 필요함)
 - 3)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

(3) 2단계 - 고조기

- 다양한 감정촉발요인에 의하여 이용인의 감정의 수준이 점차로 고조되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준에 가까워지는 단계
- 스트레스 요인(배경사건) : 수면부족, 자극과잉(소음,통증 등), 가족 안에서의 문제, 외로움, 소외감, 계절

- 비구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안정감을 유도함
 - 1) 이용인의 감정과 공간을 존중
 - 2) 구조화된 환경과 익숙한 일상이 도움 되기도 함
 - 3) 선행사건의 이해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함
 - 4) 실무자의 도발적인 자세 지양 : 실무자의 감정과 자세가 중요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취하도록 함. ex) 주먹쥐고 허리에 올리기 등
 - 5) 안전거리 두기
 - 6) 대기자세
- 구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 사용하기
 - 1) 공감하며 들어주기
 - 2) 간단명료한 언어 사용
 - 3) 대체행동을 유도하기
 - 4) 팀 안에서의 의사소통
- 도전행동의 촉발 요인
 - 1) 자폐성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 구성
 - 2)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 3) 이용인 관련 사람들(사회복지사, 치료사 및 부모)의 부적절한 반응
 - 4) 이용인의 심리적인 불안감
 - 5) 기타 사회적 요인

(4) 3단계 - 위기단계

- 이용자의 감정이 극도로 치닫는 시점으로 실무자는 이용자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주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
- 위기순간에 능숙하고 잘 훈련받은 실무자가 투입되어 대응(신체적 개입)
- 이용인과 실무자 그리고 다른 이용인의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
- 이용인의 개인별 행동 계획 필요
- 이용인은 기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때는 선행사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
- 자해 및 타해는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순간으로 생각할 수 있음(적극적인 행동)
- 자기통제+자기통제 상실 사이에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실무자의 기다림이 필요함)
- 신체적 개입의 원칙
 - 1) 이용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
 - 2)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 3) 최소 개입의 원칙
 - 4) 훈련된 종사자에 의해 실시

- 이용인과의 충돌상황에서 대응 방법
 - 1) 통제된 방식으로 반응하기
 - 2) 시선 피하기
 - 3) 신체적 접촉 피하기
 - 4) 개인적 거리를 존중하기
 - 5) 강함을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 6) 앉기 : 실무자의 일어나기는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7) 조용하게 이야기하기

(5) 4단계 - 회복기

- 긴장이 완화되고 이용인이 평정심을 찾아가지만 다시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이용인 도발행동) 대응
- 이용인의 평온을 찾도록 지원
- 구조화된 환경과 익숙한 일상으로 초대
- 이용인의 감정과 공간을 존중
- 의사소통 최소화, 과도한 움직임 자세

(6) 5단계 - 안정기

- 이용인이 원래의 평정심을 찾은 단계로 다른 이용인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시키고 평소대로 일정을 진행함. 담당 실무자와의 대화로 심리상태를 체크하고 위기상황을 문서화함.
- 개별화 행동계획 점검 및 수정
- A-B-C 분석을 통한 예방 및 계획 점검
- 직원들 심리상태 점검
- '팀워크' 중요성 강조

● 구조화 지원

(1) 들어가며 - 도전행동의 개념과 지원

- 도전행동 : 손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문화적으로 통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강하게 자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에 대한 다학제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행동
- 대응 : 문제행동의 소거 또는 제한 ->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하고 추가적인 지원
- 다양한 지원 방식 : 긍정행동지원, 기능적 의사소통 지원, 신체적 개입, 약물개입 등 다양한 방법 고안
- 우리의 방향 : 손상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손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적절하게 반응함에 따라 발생한 장애에 대한 개입 필요(사회적 모델).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이 하루하루 자기주도하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 어떻게? ->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추구
 - > 긍정행동지원, 구조화 지원(물리적 환경의 변경을 통한 지원)
- 도전행동발달장애인의 개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환경의 구성 : 기관환경의 구성/긍정행동지원실 구조화

(2) 환경의 구성 - 기관 환경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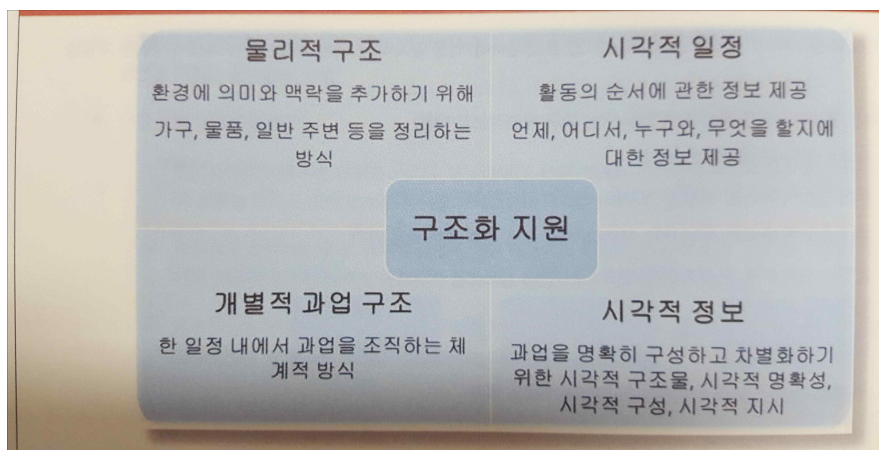
- 사람중심 기관 되기

- 1) 개별유연화와 개인을 중심에 두는 실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
 - 2) 공동생산 : 누구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실천. 직원들은 공동생산이 실천의 핵심요소임을 알아야 함. 이용자의 목소리가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사람의 자산과 삶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문화 개발
 - 선택과 통제권의 증진
 - 서로의 전문성을 이용하는 협력관계
 - 긍정행동지원실의 공간은 도전행동을 가진 이용인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물리적 장소로 이용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공간 구성의 중요한 원칙
 - 1)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화 :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청각적인 기술보다는 시각적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정보와 지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2) 이용인이 좋아하는 공간 :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용인의 적절성, 순응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용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추어 이용인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3) 도전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 : 공간크기, 교재의 다양성, 교재 교구의 재질 등 이용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전행동을 유발하는 자극들이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도전행동을 가진 이용인에게 효과적인 긍정행동지원실은 구조화된 환경, 시각적 정보시스템, 활동,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이라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구조화된 환경의 필요성
 - 1) 이용인이 환경 안에서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도전행동이나 다른 어려운 점을 감소시킴. 그것을 통하여 스케줄, 루틴, 환경의 이해와 더불어 불안감이나 혼란 등의 감정의 폭을 줄어든게 만듦.
 - 2) 구조화된 환경 안에서는 독립심과 강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3) 구조화된 환경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4) 구조화된 환경은 일반화 기술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임.

(3) 구조화 지원의 개념

- 구조화 지원 : 자폐성 장애의 신경학적 차이점을 반영하여, 이를 알고 이에 따른 문제 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식
- 자폐성 장애의 중요한 특성(일반화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다름)
 - 1)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의 어려움
 - 2) 주의 집중의 어려움, 기억의 어려움
 - 3) 관계 형성의 어려움 : 관심사기, 사회적 회피, 고독 선호 등의 행동 야기
 - 4) 감각 자극의 문제 : 자극에 과다 반응
 - * 자극 -> 개인 (인지/감각/정서 등) -> 반응(행동)
- 구조화 지원은 자폐성 장애 친화적인 지원 과정과 양식을 조직하는 것임
 - 1)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용인의 적절성, 순응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인의 개별적 욕구를 강조함. (예를 들어,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청각적인 기술보다는 시각적 기술이 더 뛰어나. 이와 같은 강점에 맞춰, 구조화 지원은 정보와 지시를 시각적으로 제공함.
 - 2) 시각적 정보는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구조화 지원의 주요 목적
 - 1) 삶의 질 향상, 일상적 활동 증가, 자립(independency) 증진
 - 2) 자폐성 장애인의 인지 기술, 욕구, 흥미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환경을 적용시킴에 따라 자폐성 장애인의 적절한 행동 관리, 일상적 활동 증가, 삶의 질 향상

(4) 구조화 지원의 구성요소



● 물리적 구조

- 1) 물리적 구조와 조직은 지원실을 흥미 있고, 깨끗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듦
- 2) 물리적 배치는 이용인의 학습 스타일, 욕구, 감각 특이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임
- 3) 개인의 욕구를 고려해야 함

- 4) 가구 배치 위치와 방법은 주변 환경을 다루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침
 - 5) 명확한 시각적 정보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독립적일 수 있게 함
 - 6) 물리적 구조는 주의산만을 최소화시키고, 일관되고 효과적인 작업을 촉진하게 됨
 - 7) 모든 이용인이 동일한 정도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8) 자기 공간이 필요한 이용인(내성적 성격의 이용인)의 경우 특별 학습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개발하고, 다른 이용인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변 물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만들면, 이용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물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9) 보다 기능이 좋고 활동적인 이용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그들이 일하는 공간보다 활동이 많아서 안됨. 소음, 시각적 이미지, 냄새 등이 심해졌을 때 이따금씩 갈 수 있는 조용한 방(공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됨
 - 10) 이용인의 연령도 물리적 구조에 영향을 미침
 - > 어린 이용인의 경우, 놀이 공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작업 공간, 분식(스낵) 공간, 자조기술 개발 공간이 필요하고, 화장실 훈련이 필요한 경우 욕실도 필요함.
 - > 나이든 이용인의 경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1:1 학습 공간, 집단 작업, 전체 작업 공간 외에도 여가에 대한 관심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 직업적 기술 향상 공간, 가사 기술 및 자조기술 향상 공간이 필요함.
 - 11) 능력 정도와 상관없이, 물품들은 개인의 이해 수준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야 함.
 - > 과업 물품들은 이용인의 학습 공간(과업 공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함
 - > 놀이나 여가 무품은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공간에서 이용 가능하면 됨
 - > 연령과 기능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인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물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물리적 공간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과업 공간 마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음
- > 이 공간에서 적절한 학습 능력 및 직업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일부 자폐성 장애인은 주의산만을 방지하여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과업 공간은 독립적 과업 또는 집단 과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주의가 쉽게 산만해 지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과업 공간은 다른 이용인과는 떨어져서 자극이 가장 적은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음 (00씨를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됨)
 - > 일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 다음에 과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 최종 과업결과를 놓을 지정 자리가 있어야 함
 - > 과업 관련 물품들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뚜렷하게 표식이 되어 있어야 함

- > 이용인들의 욕구에 따라, 집단 과업, 놀이, 여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지원실에 마련되어야 함
- > 이용인의 개념상의 욕구(즉 이용인이 원하는 욕구)와 감각 욕구(즉 이용인이 느끼는 감각에 따른 욕구)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

● 일상적 활동 일정

- 1) 한 장소(schedule)에서 다른 장소(schedule)로 이동하기 위해 조직화된 구조
- 2) 자폐성 장애인은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과 명확성(clarity)이 필요함
- 3) 우리가 자폐성 장애인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충족시키는 정도만큼, 자폐성 장애인
은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보다 차분하고 협조적인 행동을 하게 됨
- 4)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일상 활동 일정이 필요함
- 5) 개인의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일정표는 이용인 삶에 순서와 예측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삶을 짚할 수 있게 함
- 6) 자폐성 장애인은 순서 기억과 순서 조직에 어려움이 있음
 - > 수용 언어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이용(활동)에 따른 기대 상황(결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이용과정을 거부하기도 함
 - > 일정표는 일어나는 특정 활동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 활동을 조직하고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걱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7) 일정표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 자결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 지시에 보다 덜 의존적이 되도록 함
 - >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폐성 장애인은, 항상 지시를 받아 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어디로 갈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항상 혼란을 겪는 자폐성 장애인에 비해, 과다 자극 되는 빈도가 적어짐
- 8) 자폐성 장애인의 주요 특징으로 다른 과업으로의 이전의 어려움이 있음. 정기적으로 일정표를 체크함으로써 다른 과업으로의 이전(transition)이 훨씬 쉬워짐
 - >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이동할 때, 일정표에 의해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일상적 일(routine)을 할 수 있음. 불안감을 덜 유발함
- 9) 많은 자폐성 장애인은 글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한 번에 하루 전체를 개념화하지 못할 수 있음
 - > 가장 전형적인 일정표는 문자로 기록된 시간표 형태이고, 하루 전체의 일정을 일정표에 포함함. 하지만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일정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음
 - > 활동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구성된 일정표를 사용함

● 과업구조

- 1) 다양한 장소(a schedule)에서 특정 활동들(specific activities)을 완료하기 위해 조직화된 구조
- 2) 이용인들이 관련된 특정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
- 3) 활동 구조(activity system), 한 일정내의 작은 일정들(schedules within a schedule), 해야 할 일 목록(to do list)으로도 불림
- 4) 과업 구조는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보조나 지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함
- 5) 작업 구조에 따라 특정 활동 마다 다음에 할 일들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도 자신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됨. 성취감 형성
- 6) 과업 구조는 둘 또는 집단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음
- 7) 개별적인 과업 구조는 이용인에게 네 가지 정보를 알려줌
 - > 해야할 과업 / 특정 시간에 필요한 과업의 수 /
 - 진행상황과 완료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 / 과업 완료 후의 상황
- 8) 과업구조도 개인의 이해수준에 기초하여, 개인에 따라 맞추어져서 제공되고, 시각적으로 제공되고, 정기적으로 제공 됨
- 9) 정보전달 수단으로 글씨, 그림, 심볼, 숫자, 색종이, 사물 등이 사용됨
 - > 위에서 아래로 다른 색종이를 배열하는 과업구조 사용, 과업 구조의 각 색깔은 동일한 색깔의 과업을 의미
 - > 이용인은 과업 구조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로 표시된 과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10)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이용인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과업 구조의 맨 마지막에 그림을 사용할 수 있음. 그림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데, 컴퓨터 활동 영역, 예술 활동 영역 등을 나타낼 수 있음. 그러면 이용인은 과업을 끝낸 후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됨
- 11) 과업 구조는 특정 과업 행동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됨
 - > 특정 과업 수행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함. 또한 '종료'개념을 명확히 알려줌
 - >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됨. 또한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를 쉽게 함. 전이가 수위집에 따라 불안감 감소(전이 쉽지 않고, 불안감 증폭되는 것이 자폐성 장애의 특징임)
- 12) 얼마나 많은 과업을 해야 하는지 알고, 완료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폐성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함

● 시각적 구조물 및 정보

1) 구조화 지원은 활동을 고려하고 만들어 내는 데 중요

2) 각 과업은 명확성, 이해, 관심을 최대화 시킴으로써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각적으로 구성되고 구조화 되어야 함

3)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의 세 가지 요소 : 시각적 명확성, 시각적 구성, 시각적 지시

① 시각적 명확성 : 시각적으로 구조화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확화를 통해서임. 과업의 중요한 요소를 명확히 하고 이용인에게 바라는 사항이 명확하게 되면, 이용인은 최소한의 불안으로도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음

② 시각적 구성 : 사용하는 물건들의 배치 및 안정성과 관련 / 필요한 물품이 주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스스로 자신의 물품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 덜 자극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 가지런한 배치와 더불어 큰 공간은 작은 몇 가지 공간으로 구분되면 더 도움 됨

③ 시각적 지시 : 이용인이 과업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 제공 / 물품의 위치 또는 과업 수행방법 등을 표현하는 시각적 표상 / 문서로 된 지시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음 / 이용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확실성을 제공함 / 잘 나타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능하게 함

<느낀점>

* 지역연계팀 윤혜림 사회복지사

새로운 업무를 맡기전 발달장애인의 긍정행동지원 관련 교육을 들으며,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개별적 접근에 대한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개인별 언어표현이 다양하고, 제한적이다 보니 본인의 감정이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이용인들을 자주 접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규칙과 시간에 지속적으로 개인이 맞추도록 지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려졌다.

현재 장애인복지영역에서 긍정행동지원을 선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틀담 복지관의 긍정행동지원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훈련 및 의사소통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개인별 시간표는 당사자의 세부적인 욕구에 기반한 내용이며, 당사자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이용인의 변화를 확인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사소통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장애인들이 편안한 환경을 먼저 마련하는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발달장애인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지역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을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예산과 인력지원 등)이 아직도 많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 가족문화지원팀 김서영 사회복지사

“도전행동”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발달장애인의 어떤 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이었다. 문제행동의 명칭이 “도전행동”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실무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자칫 잘못 받아들일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행동”의 정의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교육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도전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도전행동이 발생했을 때 실무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인이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실무자들이 바라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인의 선택과 통제권을 중시하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중 제일 인상깊었던 점은 “도전행동 단계별 지원전략에 따른 행동지원”이었다. 사람의 감정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발달장애인의 감정에 따른 단계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비장애인은 감정에 대한 통제와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짧은 시간에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이 시점에 자기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조기”에서 실무자는 도발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선행사건에 대한 파악과 구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우선 주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위기순간에 능숙하고 잘 훈련받은 실무자가 투입되어 대응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점이 공감이 되었고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틀담복지관에서 긍정행동지원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상황에 대한 영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접하면서 지원하기까지의 기관과 실무자의 노력이 보였으며 도전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무자, 기관,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주 최		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 간		2017. 11. 16. (목) / 1일간
장 소		남동복지관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윤혜림, 변새봄
	인 원	2명
교육 시간	일 자	2017. 11. 16. (목)
	시 간	13:00-18:00 (5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마을과 함께 사례관리 실천하기

강사: 강미경(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소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1) 사례관리의 목적

-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기술, 문제해결능력 향상
- 서비스 이용자 환경체계로서 공식·비공식 자원 역량 강화
- 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2) 사례관리 과정과 직접 실천

(1) 사정

-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 사례관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하고 생존해 온 강점을 드러내고, 이를 서비스 이용자와 공유하며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규명하고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인 개인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찾고, 강점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탐색하는 과정
 -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추가되거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가능
- ⇒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 향상
- ⇒ 서비스 이용자-사례관리자의 신뢰, 협력관계 형성
- ⇒ 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① 욕구 사정 :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강점 사정 :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은 무엇인가? 그 중 조금이라도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2) 계획

- 사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변화 목표 합의
- 변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재 계획할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함.

(3) 실행

- 합의한 변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자, 사례관리자, 그 밖에 협력 자원의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
-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 시켜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4) 실행-점검

- 성공 경험의 축적은 내적 동기와 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감을 갖게 하는 요소임
- 성공의 경험은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 목표는 물론 종결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됨
- 점검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성공 경험과 작은 변화를 탐색하고 명확히 하는 과업

(5) 종결

- 사례관리자와 서비스 이용자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종결 이후에도 이용의 삶의 여정에서 사례관리자와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관계 유지
- 변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사례관리자와 기관의 상황,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종결할 수 있음

2. 행복한 나, 더행복한 우리

강사: 주혜주(경인여자대학교 정신간호학 교수)

행복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 목적

내가 행복하기

행복은 상황에 따라 잃거나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닌 '삶의 방식'

- '지금,여기'에 있기
- 몸 있는 곳에 '마음'가져오기
- 해야 하는 모든 일 기꺼이 하기
- 일어난 상황에 '예스'하기

내가 행복하기-관점 바꾸기

-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
- 빛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그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외부조건에 대한 '내 생각(관점) 바꾸기'

내가 행복하기-감사하기

감사란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감사분량=행복분량

내가 행복하기-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란

- 개인에 부담을 주는 외적 사건이나 자극
-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개인의 반응
- 개인/환경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이 위협받는 상태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 자세

- 스트레스 관리의 절대적 주체는 자기자신
- 스트레스를 두려워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지수가 하향된다.
- 언제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
- 생각의 중단
- 긍정적 자아개념 갖기: 자기 칭찬하기, 칭찬 접수하기
- 자기주장 훈련하기
- 감정수용하기, 털어놓기
- 심호흡
- 명상
- 운동

내가행복하기-마음관리하기

- 마음상태살피기
- 마음챙김
- 마음의 울타리 지키기
- 자기위로기능 활성화: 나비 포옹

행복은 상황에 따라 잃거나 얻는 게 아닌 ‘삶의방식’
: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해야 함.

내가 행복하기-셀프 리더쉽

- 의도세우기
- 전문가 되기 ‘일만 시간의 법칙’
- 자신의 일 사랑하는 법
- 1.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 2. 하는 일을 좋아하겠다고 결심하라

관계와 소통

- 바람직한 관계와 소통
- 대상자를 Empowering(힘 기르기), 대상자의 성장을 가져옴
- 과학적이고 사려 깊은 지식으로 동기화 될 때 가능

관계의 기본 태도

-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상대방에 대해 믿음 갖기
- 상대방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기

1.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1)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 인정하듯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수용 할 때 편안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 2) 성격 차이 이해하기: 자신&상대 성격 유형 파악

2. 상대방에 대한 믿음 갖기

-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으며, 보이는 행동과 잠재력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 보이지 않는 잠재력 믿을 때 대상자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짐

3.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소중히 여기기

느낀점

● 먼저 1강에서는 사례관리 실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최근 계획단계에서 이용인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통해 만족도 높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함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정단계에서의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과정을 세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게 무엇인가?'라는 문장으로 한번 더 질문하고 이용자와 대화를 더욱 잘 이끄는 실천가가 되어야겠다. 또한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강점관점 사례관리 실천을 통해 이용인의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2강에서는 이용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우리의 역할을 하기전에 한 개인으로써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채워진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좋은 사례관리자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개인의 내면관리가 사례관리의 시작임을 느끼면서 개인의 삶 또한 잘 돌아보고자 한다.

● "슈퍼맨도 항상 위기에 빠진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악당을 물리친다."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 만나는 주민들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도움 받을 곳이 없거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다시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필요한게 슈퍼맨에 힘을 주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에게는 사례관리자가 아닐까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자가 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CIRCLES(친밀감과 대인관계)



주 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기 간		2017년 2월 7일 - 28일(매주 화)
장 소		복지관 4층 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직업지원팀
	명 단	곽경숙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4일 (2017년 2월 7, 14, 21, 28일)
	시 간	총 1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 성교육 : CIRCLES

1. CIRCLES소개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성적 개인 공간과 사회적 거리, 사회-성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83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됨.
-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수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 것에 있다고 보고 간단한 로드맵을 만들어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게 하는 로드맵을 찾아내었음.
- 여섯 가지 색깔로 된 Circle을 사용해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을 범주화시켜 교수모델로 개발함.
- 각각의 CIRCLES는 색깔, 행동, 친밀감과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함.
- 발달장애인들이 친밀감과 대인관계의 다양한 수준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좋은 사회적 기술은 자존감 위에 구축된다고 봄.
-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존중감과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며, 자존감과 자율성을 지닐 때 안녕을 느끼게 된다고 봄.

1)Circle 구성

- 총 3부로 구성됨. (제1부 친밀감과 대인관계 ; 제2부 폭력 그만 ; 제3부 에이즈 -안전한 방법) 본 교육은 1부만 다루었음.
- 친밀감과 대인관계는 개인의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활동 비디오를 통해 참가자들의 학습참여를 도움.
- 활동 비디오는 참가자들이 Circle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토의하도록 도우며, 역할놀이 매트와 조각인물 그림, 개별 그래프를 학습할 때 사용함.

2)Circle 개념

- 여섯 가지 색을 지닌 Circle를 사용해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을 가르치는 방법
- 중심 Circle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색을 지닌 Circle는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과 느낌, 활동을 갖음.
- 예시: 파란색 Circle에 들어가는 “가족”은 자신이 껴안을 수 있고, 애인에게는 키스할 수 있으나 멀리 떨어진 주황색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손만 흔들 수 있음.

3)여섯 가지 색의 Circle와 그 의미

(1)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만질 수 없다.

(2)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애인이다.

(3)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당신이 가볍게 안을 수 있는(다정하지만 친밀한 껴안음은 아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날에 초대받아 온 친한 친구들이다.

(4)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악수한다.

(5)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당신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서 인사한다.

(6)붉은색의 낯선 사람 Circle

- 당신은 지역사회와 도우미들과는 일과 관련하여서만 접촉한다.
-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낯선 사람들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당신은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안 돼”라고 말할 때와 자리를 떠날 때를 결정한다.

- Circle는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을 구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
- 이 프로그램은 사회규범과 개인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침.
- 발달장애인들이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음.
- 발달장애인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 존중을 잘 하도록 도와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행동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

4) 발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Circle

- Circle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된 “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를 포함함.
- 활동비디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 만짐의 수준도 보여줌.
-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을 일치시켜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함.
- 활동비디오를 통해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음.

5) 3개의 “T” :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사회적 경계)

- Circle에 있는 3개의 “T”인,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는 여러 관계들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상징화 한 것임.
- 다양한 관계들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냄.

6)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

- 6개의 질문은 참가자들이 관계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도움.
- 각 활동비디오에는 6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고, 이것이 특별한 대인관계를 맺는 Circle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 요소임.
-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특징 6가지 요소

-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보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유대를 그 사람과 맺고 있는가?
-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가?
-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얼마나 깊은가?
-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한가?

- 6가지 결정요소들 각각의 양이 크면 클수록 대인관계는 더 친밀함.
- 이 결정요소들을 사용해 발달장애인 자신들의 실제 대인관계를 평가할 수 있음.
- 이 훈련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 대인관계에 일반화 시키도록 준비시킴.
- 이 6가지 질문과 Circle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거리감에서의 상호작용을 알게 되면 오래된 관계와 새로운 관계를 충족시키는 만짐, 말, 신뢰를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함.

2. 각 과의 구성과 주요한 내용

- 각 과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방법, 요약, 평가, 심화학습, 지원활동, 심화학습, 비판적이고 주요한 사고를 위해 만일의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을 하는 것으로 구성됨.
- 목표에 대해 확인 또는 전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활동비디오를 시청한 후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활동 비디오의 내용을 질문하고 확인함.
- 활동비디오의 내용과 참가자의 실제 상황을 대입해 질문하고 확인함.
- 3개의 “T”에 관하여서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익힘.
- 이 외에 각 과의 내용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고 답해보도록 함.

1) 제1과 : 나에 관한 것(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줌.
-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야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함.
-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도록 함. 모든 사람은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는 혼자만 들어가며 원래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함.

2) 제2과: 가족(파란색의 꺼안는 Circle)

- 이 과에서 다루는 가족은 직계가족임을 알도록 할 것.
-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나 낭만적인 것은 아님.)
- 만짐: 사랑을 보여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꼭 꺼안는 것.
- 말: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
- 신뢰: 가지 가족을 전적으로 믿는 것.

3) 제3과: 애인(파란색의 꺼안는 Circle)

- 이 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표현방법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음.
- 애인이 있는 경우 소재를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함.
- 애인이 없는 경우 이상형을 이야기해보며 애인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도움.(미성년자, 기혼자, 폭력, 거짓말, 외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등)
- 배우자 선택 기준 및 동성애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알려줄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고, 낭만적임.)
- 만짐: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껴안고 친밀하게 만지고 키스함.
- 말: 가장 친밀하고 낭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 신뢰: 서로의 느낌을 존중하고, 서로 믿으며,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음.

4)제4과: 친척(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이 과에서는 친척의 개념, 호칭에 대해 다룸(친가, 외가).
- 친척과의 관계에서 성인기인 발달장애인의 지위(위치)를 알고, 어른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친척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함.
- 연애하지 않기, 애인과 하는 낭만적인 만짐 없기, 사적 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비밀 지키지 않도록 함.
- 공적인 신체부위는 만질 수도 있음.
- 만짐: 가볍게 껴안으면서 애정을 나타내지만 꼭 껴안거나 낭만적이지는 않음.
- 말: 개인적인 소식을 나눌 수는 있으나 친밀한 것은 아님.
- 신뢰: 친척들을 대개 믿는데, 일부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줄 것임을 믿음.

5)제5과: 친한 친구들(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우정 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함.
- 성적 활동이 제외된 좋아하는 관계이며, 같이 있는 것이 기분 좋은 관계임.
- 애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애인보다 소중한 관계일 수 있음.
- 친구의 유무를 묻고, 없다고 하는 경우 내가 “친구 되어주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줌.
- 친구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 위로, 수다, 비밀이야기, 적당한 장난, 다투 있을 EO 화해하는 방법 등
- 우정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알기
(지시, 명령, 홍보기, 거짓말, 왕따, 성적 관계, 욕하기, 고자질, 폭력, 시기질투, 비난, 도벽, 돈거래, 비밀폭로 등)
- 만짐: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가볍게 껴안음.
- 말: 사적인 이야기나 유쾌한 잡담을 함께 이야기함.
- 신뢰: 일부로 자신의 감정을 해지치 않는다는 것을 주로 믿을 수 있음.

6)제6과: 이웃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고 손만 만질 수 있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일상적으로 “예의”있게 할 수 있는 대화나 인사를 알려주기(날씨이야기, 인사하기, 안부 묻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뉴스나 드라마 등 TV프로그램 이야기 등)
- 일상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태도를 갖추도록 적절한 피드백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음(인사는 한번만 하기, 함부로 만지지 않기, 도움주기 등)
- 내 이웃을 의심하기도 해야 함을 알려주도록 함.
-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성적인 활동도 안 되며, 이런 일이 발생된 경우 부모와 기관의 직원에게 알릴 것을 이야기해주어야 함.
- 만짐: 이웃사람들과 인사할 때만 그들과 악수하고, 이 때 손만 만짐.
- 말: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게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발달장애인이 대화의 깊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색 Circle이 나를 드러낼 수 없고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봐야하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도움)
- 신뢰: 이웃사람은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임.

7)제7과: 아는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이 과에서는 학교나 기관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공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아는 사람임을 알도록 함.
- 존경하는 관계이고 예의를 꼭 지켜야하는 관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님.
- 권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믿는 것임.
- 선생님이나 기관 직원 외에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음,(자원봉사자, 실습생,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자 등)
- 만짐: 권위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그들과 악수하며 이때 손만 만짐.
- 말: 아는 사람들과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님.
- 신뢰: 아는 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고, 그들의 전문성을 믿음.

8)제8과: 어린 아이들(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이 과에서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다루지만 주로 모르는 아이들에 대해 알려줌.(조카 등은 제외)
- 성인인 발달 장애인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함을 이야기함.
- 친인척을 포함해 아이들이 예쁘거나 귀여워도 하지 말아야할 행동: 만지거나 뽀뽀, 사적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나 욕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 및 발화훈련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음.⇒ 자기옹호 하도록 지도(하지 마, 그만해, 나쁜 거야,/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
-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경우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의할 사항을 인지하도록 지도함, ⇒놀이의 주도자는 아이들임.
- 만짐: 손 흔들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절제 만지지 않음
- 말: 짧게 응답해주지만 길게 말하지는 않음.
- 아이들을 거의 믿지 않는데, 그들이 미성숙하고 어른의 책임을 모르기 때문임.

9)제9과: 지역사회도우미(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지역 내 도우미들은 명확한 신분이 있음.
- 잘 모르는 경우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코디, 방역담당자, 인터넷설치기사, 배관공, 집배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 부정적인 내용을 인식하도록 함.(무조건 믿을 구는 없는 관계임.)
- 가족이 없는 경우나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기,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돈이나 선물, 칭찬을 해 주는 것에 속지 않기 등
- 만짐: 일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지지 않는 관계임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할 수 있음.
- 신뢰: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

10)제10과: 의료진들(붉은색의 낯선 사람들의 Circle)

- 의료진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접수계원, 약사 등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 사적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으나 이는 성폭력 등 성적 활동이나 관계가 아닌 일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의료진은 몸이 아플 때 찾아가지만, 몸이 아프지 않아도 검진을 위해 만날 수 있음.
- 사적인 정보를 이야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일과 관련해서만 하는 경우임을 이해하도록 함.
- 만짐: 일과 관련된다면 그들을 만지거나 자신을 만질 수 있음.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함.
- 신뢰: 함께하는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그들의 실력, 전문성 등)

11)제11과: 완전히 낯선 사람들(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임(길가의 행인, 쇼핑센터 내 쇼핑객 등)
- 낯선 사람과 말을 할 때 : 내가 실수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등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임.
- 적절한 사과, 괜찮다는 응대,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첫 말 걸기 등 직접

역할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않기,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주지 않기, 착한일 하지 않기, 짐 들어주지 말기, 끌려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단둘이 있는 경우 저항으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르침(역할극을 통해 해 볼 수 있음.)
- 만짐: 낯선 사람을 만지지 않음.
- 말 : 낯선 사람과 말하지 않음.
- 신뢰: 낯선 사람들을 믿지 않음.

3. 정리

Circles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된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s를 포함 한다. 활동드라마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뿐만 아니라 만짐의 수준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Circles는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s을 일치시키고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활동드라마에 등장한 사람들의 관계와 자신들의 실제삶에서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로써 자신들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성교육 뿐 아니라 Circles을 통하여 인간의 존중 인권교육이 병행되어 발달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다.

2017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회계실무 교육연수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7년 04월 06일~ 07일
장 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자	팀 명	운영지원팀
	명 단	이연정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8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사회복지시설 감사 준비

1. 지도점검의 중점 점검 방향

- 예산, 회계 및 후원금의 적법 집행 여부
- 시설 이용인에 대한 보호실태 전반
- 종사자 복무실태, 처우 및 시설운영 전반
- 시설물 화재 및 안전점검, 관리실태 전반 등

2. 지도점검 준비의 가장 큰 애로사항

- 점검의 주체가 누구인가 따라 달라지는 관점
- 지자체별 일관된 관점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사회복지시설 운영매뉴얼(회계, 행정)

예) 시 지도점검 기준서 마련

- 대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매뉴얼(회계분야)을 따로 발간하여 지자체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함.

3. 지도점검 주요 내용

(1) 예산과 결산

법적근거	점검사항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예산의전용)	- 예산의 전용 시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 향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에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 - 예산 전용 후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전용조서 제출
재무회계규칙 제24조 (장부의 종류)	- 모든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 수납 - 거래통장은 법인, 시설, 수익사업별 구분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지출의 방법)	-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로 행함 - 신용카드관리(발급)대장, 사용대장, 공인인증서 사용대장 등 활용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시설운영비 1만원 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 주유 포인트, 대형마트 적립포인트 사용가능(차량일지 기 안 등 예산품위서 필요)

(2) 후원금 관리

법적근거	점검사항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계좌입금되는 후원금은 영수증 발급 생략 가능) - 법인 계좌 혼용 사용, 후원금품의 환산가액 기준, 후원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50% 초과 못함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금지, 자산 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4. 지도점검 지적 사례

(1) 호봉획정, 경력산정 부적정

- 전 직원에 대해 호봉획정 적정여부를 자체점검하고 호봉이 잘못 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5년간, 지급금액은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3년간으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회수 또는 지급 조치해야 함.

(2) 후원금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S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금액만을 세입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3)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규정하고, ○○시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는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직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당해 직원과 직계존속의 주민 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만을 확인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면, 자녀의 경우 만20세가 경과하였는데도 지급하는 등 4명의 직원에 대해 총 5,120천원의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

(5) 기타

- 특정목적사업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보고없이 적립, 사용
- 운영위원 수당 지급 : 공무원 제외

Ⅱ. 사회복지기관의 세무 · 회계 기초과정

1. 회계의 기본원칙

(1)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 원칙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규칙 제2조, 지방재정법 제3조>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성, 관리 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임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 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원칙<규칙 제3조, 지방재정법 제7조>

－ 잉여금 : 결산결과 실제수입 총액에서 실제지출 총액의 차액

－ 불용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

(4)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지방재정법 제15조>

(5)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과목 간 상호이용을 금지함 <규칙 제1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예산의 종류

(1) 본예산

－ 당초 이사회의 심의(운영위원회 보고)를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

(2)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3)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3조>

－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 편성되며 전체 예산규모에 변동이 일어난다

－ 경정예산은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예산과목 상호간 예산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 작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를 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

(4) 준예산<규칙 제12조>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 이사가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
-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공공요금, 임대료, 급식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사회보험료),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5) 성립 전 예산(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예외)

-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정후원금, 기타보조금, 찬조보조금 등은 시설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3.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직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국가재정법 제22조>

4.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5. 결산의 절차

-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시설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절차 : 결산보고서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세입 세출결산서 공고

Ⅲ. 사회복지기관의 인사노무관리

1. 최근 개정 노동법

- (1)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고시 제2016-31호)
 - 최저시급 6,030원 → 6,470원
 - 최저일급(8h) 48,240원 → 51,760원
 - 최저월급(209h) 1,260,270원 → 1,352,230원+주휴수당
-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전후휴가 상한액 월135만원 → 월 150만원 (기관 부담금↓)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강화
 -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월20만원 → 월30만원
 -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 (4)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제11조 및 제17조 2항)확대 시행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도달주의)
 - 채용서류 접수 사실, 채용 여부 고지
- (5) 2016년 8월 31일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 전자문서로 체결된 근로계약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
 - PC, 스마트폰 등의 시스템에서 PDF, 한글오피스 등 전자문서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6)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7)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 2014.7.1. 시행
 - 보고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기한 및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8)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요약
 -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이행 모니터링을 강화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

2. 임금

(1) 임금의 구분

-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재해보상(휴업보상, 장해수당, 유족보상 등), 감급의 제한(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이내)
- 기타금품 : 세금 및 보험료 환급금,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 경조사 비용 등

(2) 소득, 보수, 임금의 차이

- 소득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의 근로, 사업, 자산 등에서 얻은 수입을 총칭하는 개념
예) 임금, 봉급, 지대, 집세, 이자 등
- 보수 : 소득 주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함(보수=소득-비과세 소득)
예) 특별성과금
- 임금 : 소득 중에서 임금이 아닌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임금=소득-임금이 아닌 것)
예) 교통비, 식대, 육아수당 등

IV. 제언

- 대구장애인복지관을 대표로 타 기관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공유하면서, 서로 보완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고, 각 점검나오는 대상자 변경에 따라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달라한다는 점에서, 대구시에서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문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공시하면서 회계의 시 기준이 생겨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점이 놀라웠음.
-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회계 기초과정을 배워본 적이 없어 회계 기초과정 교육이 매우 인상 깊었음. 기안작성부터 예산의 이해, 관항목구분 방법, 재무회계규칙의 중요한 원칙 등을 배우면서 문서작성능력이 고취될 수 있었음. 직접 예산작성을 실습해 볼 수 있어 기초과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며, 실무에 근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었음.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7년 9월 5일~9월 6일(1박 2일)
장 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자	팀 명	늘푸른동산
	명 단	정지은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8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뉴미디어와 문화예술교육

뉴미디어 시대, 매체를 대하는 태도 / 감성정책연구소장 최창희 소장

1. 뉴미디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1) 백남준이 언급한 ‘테크놀로지에 대응하는 방법’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더 발전된 최첨단 기술환경에서 기술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
- 기술을 통해 상상하는 방법
- 기술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

2) 뉴미디어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은 기술이 아닌 예술에 대한 교육

- 인간과 기술, 나아가 인간과 대상과 관계하는 방법

2.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1) 뉴미디어와 예술의 의미는 기술이 아닌 예술에 대한 사고

- 인간은 유희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

II.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기획자의 자세

/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효과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 장르중심의 예능교육보다는 체험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예술교육을 지향

2)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의 활용과 향유력 증진
- 창의성과 상상력 및 통합적 사고의 계발
- 리더십과 협동심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
- 자아표현과 소통능력 배양 및 인성교육에의 활용

2.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분야

1)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

- 전국 초중고 40%에 이르는 4,700여 개의 학교, 3,500명 예술강사 파견
-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제공

ex)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명예교사 프로그램 운영, 유아 문화예술교육 시범 지원사업

2)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 소외계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지원
- 거주지역 기반 따뜻한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기회확대

ex) 예술강사 지원대상 확대, 정부부처 협력을 통한 군/교정시설 지원사업,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청소년 창작활동 지원사업,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Ⅲ. 201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관련 실무교육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임은경 대리

1. 정산보고서 작성 안내

1) 제출서류

- 공문,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정산방법 및 세부내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보조강사 운영 관련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통장기장내역 전체 사본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7년 12월 29일(금)까지
- 제출방법 : 우편제출

2. 작성보고서 Tip

- 1) 필요한 서류 제출
- 2) 세목별지출순서에 따라 차례로 영수증이 정리
- 3) 예외적인 집행 건이 있을 경우 관련근거서류도 함께 제출
- 4) 예산계획대로 잔액 없이 집행이 완료
- 5) 지출건별 내역이 명확한 보고

IV. 소감 및 제언

뉴미디어와 예술 즉 인간과 로봇의 조합으로 기술과 예술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기획자의 자세’ 강의를 들으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의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장애인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큰 의의에 바탕을 두고 본 센터의 이용인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들었고 현재 3년차로 진행하고 있는 미술분야가 본 센터의 이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사전에 평가하고 3년차가 끝날 때 사후평가를 해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술분야가 아닌 국악, 연극 중의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선정해야할지 고민이 들었으며 본 센터 이용인의 사업 수행가능여부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을 생각했다. 본 센터의 이용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기획하고 1년 동안 진행하고자 한다.

2017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결과보고



주 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기 간		2017년 11월 29일~12월 1일
장 소		서울여성프라자
참석자	팀 명	늘푸른동산
	명 단	김은숙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 일
	시 간	총 30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7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교육 보고서

I. 교육내용 요약

1. 인권의 이해(역사)

세계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의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이 전쟁의 규모가 다른 어떤 전쟁과도 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다는 것이다.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수행되었으며 동시에 세계전역이 전쟁에 휩싸였다.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가운데 인류는 인류에게 직면한 두 가지 위기성에 주목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핵이며 두 번째는 인류는 2차 대전 와중에 자행된 ‘나치의 대학살’에 주목한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등에서 학살을 당했다. 이 사건은 과연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가’라는 질문과 ‘이 악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인류 존엄성에 위기성’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당시 인류로 대표되는 UN이 인권보호라는 대명제하에 창립하게 되고, 가장 먼저 ‘인권’이란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만들어 낸다. 기존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합친 그리고 향후 생명과 환경사상을 통합하는 ‘인권’이란 새로운 단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이 인류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2. 인권 감수성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사람)

사랍답게(존엄성)

누구나(보편성)

기본적(최소한)의 권리

–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3. 장애인권리협약 / 세계인권선언

① <세계인권선언>의 출발

1947년 1월 최초의 UN인권위원회

초안위원회 구성

: 최대위원장 미국의 엘리너 루스벨트

부의장 중국의 P.C창(창평춘)

프랑스, 레바논, 호주, 칠레, 영국, 소련 총 8명으로 구성

② 세계인권선언 내용

제 1조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형제자매애 :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

제 2조 모든 차별금지

제 3조-6조 생명, 자유, 안전

제 7조-11조 사법적 권리

제 12조-17조 사생활 보호, 사유재산권

제 18조-21조 정치적 권리

제 22조-23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노동할 권리

제 24조-27조 휴식, 여가, 교육,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제 28조-30조 체재, 의무, 제한의 메시지

③ <장애인권리협약> 핵심 내용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해야 함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함

·사회적 장벽제거를 위한 편의 제공과 적극적 조치 결여는 차별임

·영양, 수질, 공중위생, 빈곤완화, 사회보장, 교육, 고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해야 함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막론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함

·모든 정책 형성 과정과 평가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함.

4. 소수자 인권

①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 받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②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 권력을 지닌 주류 집단을 지칭하는 다수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권력을 지니지 못한 집단(Minority)

→ 소수자 인권은 소수자 차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코리안 드림- 이주노동자

우리 안의 이방인- 화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적 소수자

5.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①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구현
- ② 주요개념
 - 장애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 2조 제 1항)
 - 차별행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제 4조 제 1항)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 4조 제 2항 제 3호)

6. 장애인해교육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의 주요장애>

- ① DSM-5에서 신경발달장애 중의 지적장애

: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유아기 및 아동기 장애와 관련이 깊다. 전형적으로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발달초기의 정신장애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경발달장애의 원인은 심리사회적 문제보다는 주로 중추 신경계, 즉 뇌의 발달 지연 또는 뇌손상과 관련이 있다. 손상의 범위도 다양해서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신경발달장애는 1) 지적장애 2) 의사소통장애 3) 자폐스펙트럼 장애 4)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5) 특정학 습 장애 6)운동장애의 6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 ② DSM-5에서 자폐성장애

- ③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지적장애

- ④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자폐성장애

- ⑤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진행성 근위축증, 소아마비

7. 인권감수성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 ‘인간의 권리’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 ‘천부 인권’또는 생득권 :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자연권’ :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

<인권감수성의 뜻>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느끼고, 인권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질 혹은 능력”

8. 사회복지사의 인권

9.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독립시키는가?>

① 자조와 자조모임이란 무엇인가?

·자조란 스스로 자기를 돕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수정’과 ‘성찰’을 배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 다음에는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과거 자기가 현재의 자기를 도와 지금 ‘더 발전한 자기’를 만드는 연속된 과정이다.

모든 자조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 다른 사람들의 지시나 강제없이 모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조활동을 이어나가고 모임을 구성하고 진행하며 유지하는 것이 있다.

②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자조활동과 모임은 무엇인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자조활동과 모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애를 사랑하고 같은 장애인들과 소속감과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자조 활동 및 모임의 구성 및 형태

·자부심과 즐거움을 주는 자조활동과 모임

- 완벽하게 자기 결정과 당사자 주위에 의해 당사자 주위에 의해 당사자들이 또는 다른 당사자들을 모집하고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모임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형태
- 장애인 전문가 그룹들이 당사자들을 모집하고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 조력자가 내용을 짜고 모임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형태
- 장애인 부모 그룹들이 자신의 노후나 사후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을 모집하고 진행하는 형태

④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자조 활동 및 모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전략

·무엇이든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대답할 지적능력이나 의지를 따지지 말고!

·무엇이든 당사자가 직접 선택 결정하세요.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을 무한 반복하더라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팀워크가 중요하다.

10. 장애와 성

① 성 지원의 기본 관점

·인간은 성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로서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성 지원은 생물학적인 것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관계(연령, 관계, 상황에 맞는 표현) 형성 교육에 중점을 둔다.(친밀감 표현과 성적 표현의 차이)

·성 행동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문제행동(성폭력)으로 지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 행동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이 되게끔 지원한다.

11.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과 실제

① 인권교육가의 자세

- 자세1 : 학습자를 신뢰해야
- 자세2 : 학습자 지향적이어야
- 자세3 : 단기간 변화 과신금지, 목적과잉 금지
- 자세4 : 교육기법에 매몰되지 말아야(테크닉과잉 금지)
- 자세5 : 학습자에게 더 많이 말할 기회를 주어야
- 자세6 : 교육 참여자들과 친밀해져야
- 자세7 : 즐겁게 학습하는 에듀테인먼트
- 자세8 : 학습자 참여 촉진위해 좌석배치 변화

② 학습자 경험 가치 부여의 중요성

-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후 학습자들은 그 경험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다.
- 학습자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정보와 이론이 더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집합적으로 만들어진다.
- 학습자는 학습한 것을 실천해보고 새로운 기술과 전략, 행동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 학습자는 이후 자신이 배운 것을 행동에 적용한다.

③ 인권강의 준비시 고려사항

- 강의 대상 확인
- 강의 시간 확인
- 강의 장소 확인
- 강의 내용과 주제 확인
- 강의 행 설계
- 강의평가 및 AS장치

II. 소감

2박 3일 인권교육을 들으며 무엇보다 나의 몸과 정신이 인권의 감수성이 예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인권은 결코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불편한 부분을 용기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결코 나의 권리와 존엄성만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권이 골고루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인권 지킴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번 교육은 개인적으로 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CIRCLES(친밀감과 대인관계)



주 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기 간		2017년 2월 7일 - 28일(매주 화)
장 소		복지관 4층 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금민희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4일(2017년 2월 7, 14, 21, 28일)
	시 간	총 1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교육: CIRCLES

1. CIRCLES 소개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성적 개인공간과 사회적 거리, 사회-성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83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됨.
-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수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 것에 있다고 보고 간단한 로드맵을 만들어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게 하는 해결책을 찾아내었음.
- 여섯 가지 색깔로 된 Circle을 사용해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을 범주화시켜 교수모델로 개발함.
- 각각의 CIRCLES는 색깔, 행동, 친밀감과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함.
- 발달장애인들이 친밀감과 대인관계의 다양한 수준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좋은 사회적 기술은 자존감 위에 구축된다고 봄.
-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을 정의내리고 존중감과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며, 자존감과 자율성을 지닐 때 안녕을 느끼게 된다고 봄.

1) Circles 구성

- 총 3부로 구성됨. (제1부 친밀감과 대인관계 ; 제2부 폭력 그만 ; 제3부 에이즈-안전한 방법) 본 교육은 1부만 다루었음.
- 친밀감과 대인관계는 개인의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활동 비디오를 통해 참가자들의 학습참여를 도움.
- 활동 비디오는 참가자들이 circles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토의하도록 도우며, 역할놀이 매트와 조각인물 그림, 개별 그래프를 학습할 때 사용함.

2) Circles 개념

- 여섯 가지 색을 지닌 Circles를 사용해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을 가르치는 방법
- 중심 Circle인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색을 지닌 Circles는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과 느낌, 활동을 갖음.
- 예시: 파란색 Circle에 들어가는 “가족”은 자신이 껴안을 수 있고, 애인에게는 키스할 수 있으나 멀리 떨어진 주황색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손만 흔들 수 있음.

3) 여섯 가지 색의 Circles와 그 의미

(1)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만질 수 없다.

(2)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애인이다.

(3) 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당신이 가볍게 안을 수 있는(다정하지만 친밀한 껴안음은 아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날에 초대받아 온 친한 친구들이다.

(4)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악수한다.

(5) 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당신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6) 붉은색의 낯선 사람 Circle

- 당신은 지역사회와 도우미들과는 일과 관련하여서만 접촉한다.
-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낯선 사람들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당신이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안 돼”라고 말할 때와 자리를 떠날 때를 결정한다.

- Circles는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을 구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
- 이 프로그램은 사회규범과 개인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침.
- 발달장애인들이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음.
- 발달장애인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 존중을 잘 하도록 도와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행동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함.

4) 발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Circles

- Circles는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된 “만짐, 말, 신뢰”와 함께 그에 해당되는 색을 지닌 Circles를 포함함.
- 활동비디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수준, 만짐의 수준도 보여줌.
-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에 적절한 색의 Circle을 일치시켜 그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함.
- 활동비디오를 통해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평가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울 수 있음.

5) 3개의 “T” :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사회적 경계)

- Circles에 있는 3개의“T”인,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는 여러 관계들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상징화 한 것임.
- 다양한 관계들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냄.

6)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

- 6개의 질문은 참가자들이 관계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도움.
- 각 활동비디오에는 6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고, 이것이 특별한 대인관계를 맺는 Circle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 요소임.
-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특징 6가지 요소

-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보아왔는가?
-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유대를 그 사람과 맺고 있는가?
-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가?
-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얼마나 깊은가?
-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한가?

- 6가지 결정요소들 각각의 양이 크면 클수록 대인관계는 더 친밀함.
- 이 결정요소들을 사용해 발달장애인 자신들의 실제 대인관계를 평가할 수 있음.
- 이 훈련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 대인관계에 일반화시키도록 준비시킴.
- 이 6가지 질문과 Circles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거리감에서의 상호작용을 알게되면 오래된 관계와 새로운 관계를 충족시키는 만짐, 말, 신뢰를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함.

2. 각 과의 구성과 주요한 내용

- 각 과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방법, 요약, 평가, 심화학습, 지원활동, 심화학습, 비판적이고 주요한 사고를 위해 만일의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을 하는 것으로 구성됨.
- 목표에 대해 확인 또는 전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활동비디오를 시청한 후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활동 비디오의 내용을 질문하고 확인함.
- 활동비디오의 내용과 참가자의 실제 상황을 대입해 질문하고 확인함.
- 3개의 “T”에 관하여서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익힘.
- 이 외에 각 과의 내용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고 답해보도록 함.

1) 제1과: 나에 관한 것(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줌.
-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야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함.
-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도록 함. 모든 사람은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에는 혼자만 들어가며 원래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함.

2) 제2과: 가족(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이 과에서 다루는 가족은 직계가족임을 알도록 할 것.
-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나 낭만적인 것은 아님.)
- 만점: 사랑을 보여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꼭 껴안는 것.
- 말: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
- 신뢰: 가지 가족을 전적으로 믿는 것.

3) 제3과: 애인(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이 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표현방법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음.
- 애인이 있는 경우 소개를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함.
- 애인이 없는 경우 이상형을 이야기해보며 애인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도움.(미성년자, 기혼자, 폭력, 거짓말, 외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등)
- 배우자 선택 기준 및 동성애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알려줄 수 있음.
- 이 Circle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T”를 확인하도록 함.(세 범위를 다 포함하고, 낭만적임.)
- 만점: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껴안고 친밀하게 만지고 키스함.
- 말: 가장 친밀하고 낭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 신뢰: 서로의 느낌을 존중하고, 서로 믿으며,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음.

4) 제4과: 친척(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이 과에서는 친척의 개념, 호칭에 대해 다룸(친가, 외가).
- 친척과의 관계에서 성인기인 발달장애인의 지위(위치)를 알고, 어른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친척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함.

- 연애하지 않기, 애인과 하는 낭만적인 만짐 없기, 사적 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비밀 지키지 않도록 함.
- 공적인 신체부위는 만질 수도 있음.
- 만짐: 가볍게 껴안으면서 애정을 나타내지만 꼭 껴안거나 낭만적이지는 않음.
- 말: 개인적인 소식을 나눌 수는 있으나 친밀한 것은 아님.
- 신뢰: 친척들을 대개 믿는데, 일부러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줄 것임을 믿음.

5) 제5과: 친한 친구들(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우정 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함.
- 성적 활동이 제외된 좋아하는 관계이며, 같이 있는 것이 기분 좋은 관계임.
- 애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애인보다 소중한 관계일 수 있음.
- 친구의 유무를 묻고, 없다고 하는 경우 내가 “친구 되어주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줌.
- 친구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 위로, 수다, 비밀이야기, 적당한 장난, 다투었을 때 화해하는 방법 등
- 우정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알기
(지시, 명령, 홍보기, 거짓말, 왕따, 성적 관계, 욕하기, 고자질, 폭력, 시기질투, 비난, 도벽, 돈거래, 비밀폭로 등)
- 만짐: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고 애정어린 방식으로 가볍게 껴안음.
- 말: 사적인 이야기나 유쾌한 잡담을 함께 이야기함.
- 신뢰: 일부러 자신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로 믿을 수 있음.

6) 제6과: 이웃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고 손만 만질 수 있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일상적으로 “예의”있게 할 수 있는 대화나 인사를 알려주기(날씨이야기, 인사하기, 안부 묻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뉴스나 드라마 등 TV프로그램 이야기 등)
- 일상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태도를 갖추도록 적절한 피드백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음.(인사는 한번만 하기, 함부로 만지지 않기, 도움주기 등)
- 내 이웃을 의심하기도 해야 함을 알려주도록 함.
-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성적인 활동도 안 되며, 이런 일이 발생된 경우 부모와 기관의 직원에게 알릴 것을 이야기해주어야 함.
- 만짐: 이웃사람들과 인사할 때만 그들과 악수하고, 이 때 손만 만짐.
- 말: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게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발달장애인이 대화의 깊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색 Circle이 나를 드러낼 수 없고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봐야하는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도움.)
- 신뢰: 이웃사람은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임.

7) 제7과: 아는 사람들(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이 과에서는 학교나 기관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공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아는 사람임을 알도록 함.
- 존경하는 관계이고 예의를 꼭 지켜야하는 관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님.
- 권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믿는 것임.
- 선생님이나 기관 직원 외에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음.(자원봉사자, 실습생, 사회복지요원, 자활근로자 등)
- 만짐: 권위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그들과 악수하며 이때 손만 만짐.
- 말: 아는 사람들과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님.
- 신뢰: 아는 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이름 외에는 아는게 거의 없고, 그들의 전문성을 믿음.

8) 제8과: 어린 아이들(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이 과에서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다루지만 주로 모르는 아이들에 대해 알려줌.(조카 등은 제외)
- 성인인 발달장애인이 아이들을 대할때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함을 이야기함.
- 친인척을 포함해 아이들이 예쁘거나 귀여워도 하지 말아야할 행동: 만지거나 뽀뽀, 사적신체부위 만지지 않기
-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경우나 욕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 및 발화훈련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음.=> 자기옹호 하도록 지도(하지 마, 그만해, 나쁜 거야./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
-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경우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의할 사항을 인지하도록 지도함.=>놀이의 주도자는 아이들임.
- 만짐: 손 흔들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절대 만지지 않음.
- 말: 짧게 응답해주지만 길게 말하지는 않음.
- 아이들을 거의 믿지 않는데, 그들이 미성숙하고 어른의 책임을 모르기 때문임.

9) 제9과: 지역사회도우미(붉은색의 낯선 사람의 Circle)

-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지역 내 도우미들은 명확한 신분이 있음.
- 잘 모르는 경우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코디, 방역담당자, 인터넷설치기사, 배관공, 집배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 부정적인 내용을 인식하도록 함.(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관계임.)
- 가족이 없는 경우나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기,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돈이나 선물, 칭찬을 해 주는 것에 속지 않기 등
- 만짐: 일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지지 않는 관계임.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할 수 있음.
- 신뢰: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

10) 제10과: 의료진들(붉은색의 낮선 사람의 Circle)

- 의료진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접수계원, 약사 등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 사적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으나 이는 성폭력 등 성적 활동이나 관계가 아닌 일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도록 함.
- 의료진은 몸이 아플 때 찾아가지만, 몸이 아프지 않아도 검진을 위해 만날 수 있음.
- 사적인 정보를 이야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일과 관련해서만 하는 경우임을 이해하도록 함.
- 만짐: 일과 관련된다면 그들을 만지거나 자신을 만질 수 있음.
- 말: 일과 관련해서만 말함.
- 신뢰: 함께하는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음.(그들의 실력, 전문성 등)

11) 제11과: 완전히 낮선 사람들(붉은색의 낮선 사람의 Circle)

-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임.(길가의 행인, 쇼핑센터 내 쇼핑객 등)
- 낮선 사람과 말을 할 때: 내가 실수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등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임.
- 적절한 사과, 뉘죄다는 응대,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첫 말걸기 등 직접 역할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낮선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않기,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주지 않기, 착한일 하지 않기, 짐 들어주지 말기, 끌려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단둘이 있는 경우 저항으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르침. (역할극을 통해 해 볼 수 있음.)
- 만짐: 낮선 사람을 만지지 않음.
- 말 : 낮선 사람과 말하지 않음.
- 신뢰: 낮선 사람들을 믿지 않음.

3. 정리

Circles는 단순히 성교육만을 다뤘다기 보다는, 환경 속에 속한 사람을 보고 그 관계와 친밀감을 주제로 하여 “내”가 중요함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시설에서 성교육과 인권교육, 그 밖에 직업적응훈련들에서 분절된 내용으로 각각을 프로그램화해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Circles는 이러한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매 회마다 지속적으로 다루고, 매 회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며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꼭 짚어주는 것 같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직원으로서도 교육이나 훈련 등 제공하고 지원하는 “주는 것”의 중요함에만 집중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으며, 롤 모델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의 직원으로서 자세에 대해서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 있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진행하며 효과성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재고하게 되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 Circles가 미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생각해보고 우리 이용인에 적용한다면 더 없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과 국제협력 어떻게 할까?



주 최		비영리컨설팅 웰퍼
기 간		2017.06.10(토) 10:00-17:00
장 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김지혜, 류수진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6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과 국제협력 어떻게 할까?

강사 : 김형석 교수(뉴욕대 석좌교수/UN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I.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

1. 사회복지와 인권의 가치

- 1) 사회복지와 인권 :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 등과 같은 핵심적 가치를 공통으로 추구
- 2) 사회복지의 본질상 인권의 이상을 여러 형태로 실현, 보장해주는 실천분야

2. 인권의 개념과 특징

- 1) 누구나 사람이라서 갖는 권리
- 2) 사람(약자)을 사람답게 만드는 권리
- 3) 약자와 소수자의 인간성, 권리회복
- 4)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연관성, 상호 보강성
- 5) 실정법 이전의 강력한 도덕적 권리
- 6)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 법제화
- 7) 침해와 위반 시 사법구제 가능
- 8) 인권은 각성과 투쟁의 언어
- 9) 인권교육의 중요성

3. 인권의 3세대와 사회복지

- 1) 1세대 인권(자연권, 자유권) : 시민적, 정치적 영역
 -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18세기의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발달을 본 공민권과 정치권 영역
- 2) 2세대 인권(생존권)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총 망라하는 개념
 -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밀접한 관계, 추상적인 프로그램의 규정을 초월하여 실정법상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의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우선권, 예산확보와 헌법적 제도적 보장
- 3) 3세대 인권(환경권, 개발권) : 연대적, 공동체적 영역
 - 평화에의 권리, 생태학적 환경의 보호, 발전권 등 인권의 연대성 강조

4.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RPD)

1)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목표

- 전 영역에 걸친 권리의 인정
- 복지/시혜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이동
- 권리 기반의 발전 보장 촉구

2) 국제 장애인권리 협약의 원칙

-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 향유 재확인
- 차별금지와 기회균등 보장, 장벽철폐를 위한 '편의제공' 기여와 '적극적 조치'의 기여도 차별임을 인정
- 기본적 욕구 충족을 인정하여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권리실현
- 장애의 종류,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 상 지위의 차이 제거
- 모니터링(감시와 검토)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5.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원칙

- 1) 천부적 인간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2) 비차별
- 3)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4)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 5)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평등
- 6)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6. 권리 중심의 요소

- 1) 기본적 욕구 충족
 - 2) 인간의 존엄성 인정
 - 3) 결정 과정에 참여
 - 4) 시민사회 역할의 강화
 - 5) 집단행동을 통해 의무 수행자에게 권리 행사
 - 6) 정책/정책 실무에 변화 시도
 - 7)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 행사
- CRPD는 도덕적 권리보다 법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

7.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기본 인식

- 1) 인권감수성 : 서비스 이용자의 실태,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노력
- 2) 인권적 판단력 : 서비스 이용자의 어떤 행동이 인권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는 노력
- 3) 인권 의식의 동기화 :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 하려는 노력
- 4) 인권옹호 행동의 실천의지 :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의지

8. 인권/권리 문화의 확산

- 1) 강력한 인권문화를 구축하여 인권이 소수의 법률/인권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의 확산
- 2) 복지 수혜자의 권리가 법적,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지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확산
- 3) 효과적인 장애인 권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 개인적인 동기부여, 개인의 비전과 헌신, 공동체의 총체적인 지원
- 4) 인권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이상, 인권공동체의 비전
 -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정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비전과 확신

II. 사회복지의 국제화 과제

1. 국제 사회복지와 세계 빈곤의 문제

- 1) 세계 28억의 인구(세계인구의 1/2)가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존하며 1달러로 생존하는 인구는 약 12억, 기아로 인해서 매 5초마다 3명, 1분에 34명(그중 어린이가 70%), 하루에 5만 명, 1년에 1800만 명이 사망
- 2) 소수에 의한 부의 축적이 가능한 경제구조,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초래
- 3) 2010년 한국 정보의 OECD/DAC 가입 - GNP의 0.23%, 3조원에 달하는 해외 개발협력 기금을 출연하기로 OECD와 합의

2. 국제 협력의 필요성

- 1) 서회-정치적, 경제적
- 2) 인도주의 및 도덕적 책임
- 3) 공통의 이익
- 4) 자기이익 및 자기보호

3. 사회개발의 개념

- 1)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초점을 둔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
- 2)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
- 3) 경제개발 노력과 사회적 개입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와 사회적 목적의 통합

3. 왜 국제사회복지개발인가?

- 1) 현재의 NGO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지금까지 국제협력을 주도해온 경제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
- 2) 사회영역의 학문적 성격과 훈련,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
- 3) 국제사회복지개발의 두드러진 정치성 및 접근방법의 특징은 기존의 잔여적 복지나 대부분의 개발 NGO 사업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과 방법론을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함.

4. 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

- 1) 아동, 가족복지, 장애, 청소년, 약물중독, 지역복지의 전문성
-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창출
- 3) 상담, 역량강화 등의 기술 활용
- 4) 사회자원 개발 기술
- 5) 욕구조사, 사회조사방법론 등의 연구 역량
- 6) 프로포절 작성 및 프로젝트 개발
- 7) 사회복지 기획의 전문성
- 8) 사업의 모니터링, 시행 및 평가
- 9) 사회적 기업의 개발(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등)
- 10) Fund Raising

5. 재활분야의 국제협력 모형



Ⅲ. 제언

인권과 국제협력이라는 강의 주제에 대해 낯선 느낌을 받았으나 인권의 기본개념과 실천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인권과 국제협력의 상호관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제협력이나 국제사회개발이라는 영역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할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짧은 시간의 강의로 사회복지와 인권, 국제협력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없었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복지와 인권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며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간과하지 않고 인권의식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주 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기 간		2017.06.23(금) 19:00-21:00
장 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김지혜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성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강사 : 홍영준 교수(상명대학교)

1. 공공성이란?

- 1) 행위의 주체 :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혹은 재화 생산(직접 개입)
- 2) 행위의 속성 : 주체와 상관없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 3) 행위의 목적 : 공익실현, 공익의 달성, 공공성과(행위의 목적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일치, 실현, 대변하는가?)
- 4) 공적가치/속성 : 공적가치라 부를 수 있는 시민정신, 보편성, 책임성, 개방성, 반응성, 정의, 공유성, 공정성, 민주성, 형평성
- 5) 자원 : 행위 주체들이 사용하는 자원이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사회복지 내의 공공성

- 1) 형식적 차원 : 정부의 역할(복지서비스 지출 비용 비율, 정부 역할의 정당성)
- 2) 실질적 차원 : 사회권(소득 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 제도의 보장수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공공성의 평가기준으로 봄
- 3) 내용적 측면 : 서비스의 권리보장, 적용 범위의 보편성, 접근/이용 상의 불평등
- 4) 절차적 측면 :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역할,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두 가지 측면

3. 공공상의 차원 구분

- 1) 형식적 공공성
 - 행위 주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나 시장체계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영역을 정부 및 공적기관이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
 - 정부나 공적기관이 행위주체로서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여 시장이나 민간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
- 2) 내용적 공공성
 - 행위의 목적이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다수 이익의 결과를 강조하는 관점
 - 다수의 이익이란 정의, 민주성, 형평성, 공정성, 시민참여, 능률성, 효과성, 성과와 같은 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

4.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한계

- 1)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확충 필요성 급증
 - 부족한 보육/요양시설의 민간자본 참여 유도
 - 부족한 인력(보육교사/요양보호사) 단기 양성
- 2) 문제점
 - 과도한 경쟁구조 :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 구조에 내몰림.
 - 열악한 종사자의 근로조건 :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등에서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의 재정 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임.
- 3) 대책
 -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공단'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됨.

5.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 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개로 이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이 157만개로 64.0% 차지해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약 2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87.3%를 차지함.
 -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보육시설 확대 및 보조, 장애인 및 노인요양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임.
- 2) 한국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성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6.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방안

1) 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 2천 년대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음. 이 재단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전환이 될 경우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고,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음.

2)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 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왔음. 국민연금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으로 국민연금기금은 국채 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음.
-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자금을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 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임.
- 공간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3) 가칭 시도단위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안)

- 사회서비스는 철저하게 지역단위에 기반 해야 하므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사회서비스공단은 단순히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영시설 외에 여타 위탁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서비스지원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역단위에서 서비스기관의 공영적 운영을 넘어서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종합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설정되어 있음.

4) 민간위탁의 재검토와 시설 직영

-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나 한계점도 분명함. 그 동안 우리나라 공공시설의 민간(법인)위탁은 위탁시설의 ‘사유화’경향, 민관유착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었음.
- 기존의 위탁운영이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공단에 의한 시설직영은 기존의 위탁독점구조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히 공단에 의한 시설 직영은 위탁운영에 비해 종사자들의 고용 구조를 훨씬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7.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1) 주요 사업과 기능(안)

-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 필요

2)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대 효과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보로 정부 신뢰도 증가
-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 구조의 완화
-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제공 역량을 강화
- 종사자의 경우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정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 고취
-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

8. 결론과 남은 쟁점들

- 1)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 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도록 소규모시설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형화가 된다면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도 있음.
- 3)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직영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소규모 민간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서비스, 인력관리 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4)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수단임.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9. 제언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논의가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단과 재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질적인 부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됨.

‘사회서비스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적인 움직임을 주시하여 변화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1기 정신보건시설 현장맞춤기획과정



주 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자활연수원
기 간		2017년 11월 2일 (목)13:00~ 2017년 11월 3일 (금) 13:50
장 소		한국자활연수원
참석자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명 단	송준규
	인 원	총1명
교육	일 자	총2일
시간	시 간	총1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일차

1. 정신재활시설의 방향성 수립(국가정신보건의 방향성 이해)

1) 정신보건법 이전의 정신보건 정책(1984~1990년)

- 미디어 역할(KBS: 추적 60분)
- 1차 기관 : 정신과, 보건소, 상담소 / 정신질환자의 발견, 진료, 상담 등
- 2차 기관 :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관 및 정신요양시설 / 진료, 재활, 훈련
- 공립 및 사립 정신병원 증가

2) 1995 정신보건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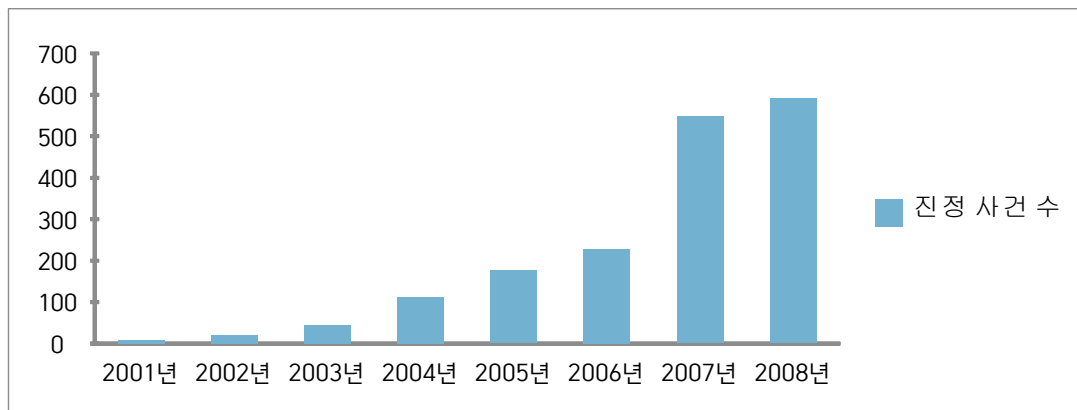
- 만성정신재활을 앓고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적 재활을 도모
- 정신 장애인들의 안전한 탈 제도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재활의 예방·의료·장애·극복·사회복귀를 위해 필요

3) 각 시도별 정신보건센터

- 서울시 강남구 정신보건센터(1995년 설립)
- 수원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1996년 설립)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및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창립
-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확산(1997년)
- 성남시정신보건센터 개소(1999년 개소)

4) 인권위 연도별 및 유형별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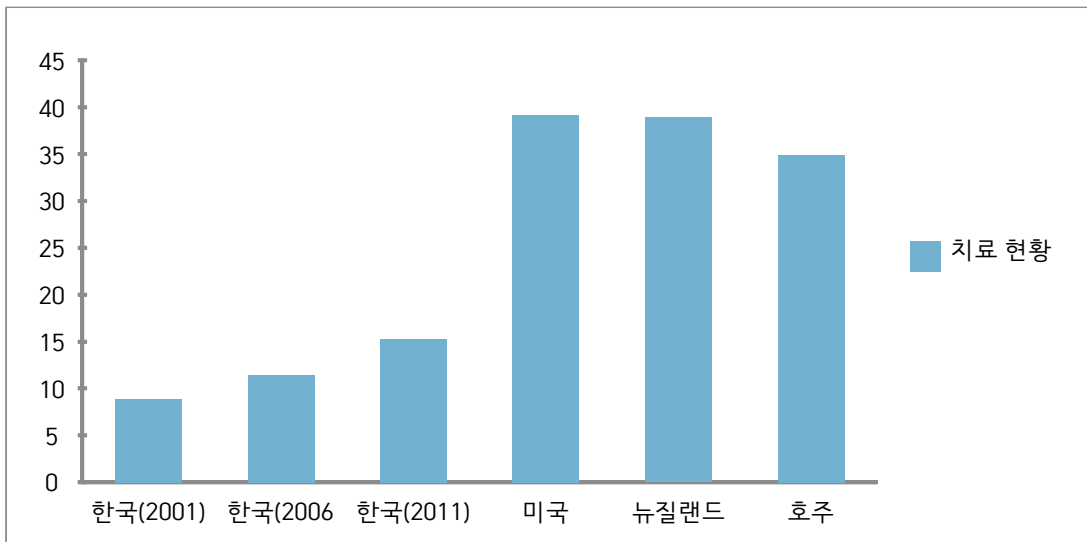
인권위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의 유형	
강제입원	605
가혹행위	502
강제투약 등 부당한 치료	414
퇴원불허	411
면회금지 등 사생활 침해	339
열악한 시설, 환경, 위생	215
알 권리 종교의 자유, 진정권 방해	101
성폭력 등	22



5)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율

구분		2001	2006	2011
평생 유병율	모든 종류의 정신 질환	30.9%	30.2%	27.6%
	마약 종류 제외	25.8%	25.9%	24.7%
1년 유병율	모든 종류의 정신 질환	19.0%	17.2%	16.0%
	마약 종류 제외	14.4%	13.0%	13.7%

6) 정신건강 치료현황 비교표



7) 정신건강 종합 대책 2016

① 서비스 이용 제고 및 조기발견 개입 강화

국민정신 정강 중진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지원 이동버스 정신건강취약계층 심리지원 재난 피해자 위기심리지원
	개발·시범운영 ·보급	자가관리 지원체계 동네의원 스크리닝·연계 마음건강 주치의 모델 개발 사례 중심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역량강화 및 지원	교사 직무연수 콘텐츠 지원 심리지원 전문인력 양성 심리지원 풀 관리
	정신건강 R&D	재난 정신건강지원서비스 모형 및 업무수행전략 개발(진행중) 한국형 재난 유형별 개입기술 개발(진행중)

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국민정신 건강 증진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학대 위기개입
	개발·시범운영 ·보급	생애주기별 스크리닝 도구 개발 노인 정신건강종합검사 모델 개발 노인특화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및 지원	범부처 정신건강 교육 콘텐츠 지원 정신과 전문의 슈퍼비전 지원
	정신건강 R&D	발달지연 영유아 감별진단·평가도구 개발(진행중) 한국형 재난유형별 개입기술 개발(진행중)

③ 조기 집중치료로 만성화 방지 /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직접 서비스	24시간 응급병상 운영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개발·시범운영 ·보급	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중간단계 모형 구축 신체복합 질환자 치료가이드라인 개발
	역량강화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개방성 확대 위한 정보제공
	정신건강 R&D	조기정신증 및 고위험군 발견 관리를 위한 병의원·지역사회 통합 모 형개발(진행중) 입·퇴원 관리 시스템 구축(진행중)

④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중독문제 조기선별·개입체계 구축 중독자 치료·회복지원 강화

중독으로 인한 건강저해 및 사회적 피해 최소화	직접서비스	범법중독자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지원 - 보호관찰소, 소년원
	개발·시범운영 ·보급	대상별, 유형별 중독문제 선별도구 개발·보급 SBIRT 고도화 치료지원 모델 개발
	역량강화 및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독관리 전문인력 양성
	정신건강 R&D	청소년 대상 SBIRT 개발(진행중) 고위험군 대상 자가 프로그램 개발(진행중)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발생기전 및 위험 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 적 코호트 연구(진행중)

8) 정신보건법 개정 안 추진 배경

① 국민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정신질환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질병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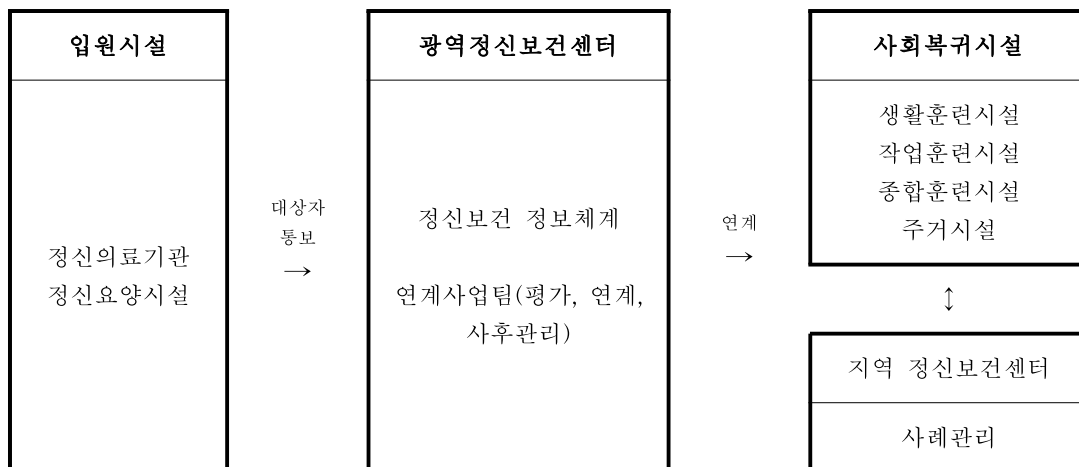
정신질환의 보편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2010년)
국내 18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14.4%)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총 22조 3,942억원 중 작업손실 비용으로 20조 664억원 발생(결근 및 생산성 감소 등)
WHO는 2030년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환경적 요인 (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사회적 요인 (일반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신설 - 조기발견 체계구축 - 학교, 사업장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 정신건강의 날 지정(10월 10일)
윤리적 요인 (비자의 입원·퇴원제도 개선)	비자의 입원·퇴원제도 절차강화 - 동의입원 신설 - 비자의입원 절차 강화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설
문화적 요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추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할 등 통합지원 - 가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③ 병원과 지역사회 연계의 강화

- Continuity of Care의 원칙
- 중간 거주시설과 공공 주거 시설의 설치



④입원-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

연도	2003년	2006년	2017년
입원치료	30.2%	33.6%	29.8% (전체 병상 중 급성병동 30%)
지역사회	7.9%	13.8%	40.2%
자가치료 혹은 방치환자	61.9%	52.7%	30.0%

⑤지역사회로 배출된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구분	입원		퇴원	계속입원자	
	모든 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비율
2014	164,083	83,909	54,018	29,072	35.6%
2015	164,807	85,129	53,545	31,854	37.1%
평균	164,445	84,519	53,782	30,328	35.9%

⑥복지서비스 주요내용 및 시사점

<표-1>

복지서비스 개발(33조)		
구분	법	시행규칙(28조)
복지서비스 개발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의한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에서 다음의 연구 수행 1.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연구 2. 권익옹호지원체계 연구 3. 사회적 활동 참여 지원 체계 4. 지역사회복귀 방안 연구 5. 지역사회 내 참여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		
시사점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행 주체와 연구의 방향을 제시	

<표-2>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구분	법	시행규칙(29조)
복지서비스 개발 근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등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 2. 재활훈련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확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 3.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관을 직업재활시설로 지정가능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가능
↓		
시사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시설을 활용토록 하여 타 장애인 시설 활용가능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지침 등을 통해 명시 필요	

<표-3>

평생교육 지원(제35조)		
구분	법	시행규칙
복지서비스 개발 근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향후 제정 예정 정신질환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 함양을 포함한 평생교육 과정 개발
↓		
시사점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정 평생교육과정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행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	

<표-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구분	법	시행규칙
복지서비스 개발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제정 예정 당사자 단체와 권익옹호 단체가 참여하는 문화, 예술, 여가활동지원 등이 필요
↓		
시사점	정신질환자의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 마련 문화, 예술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행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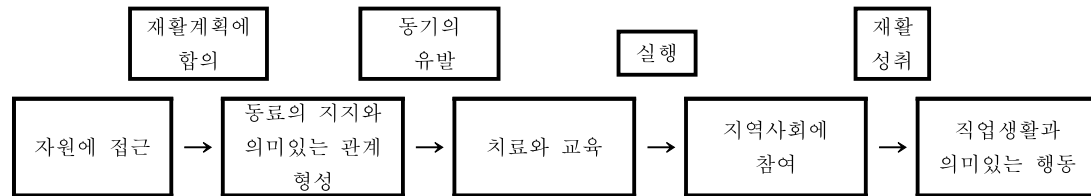
<표-5>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제37조)		
구분	법	시행규칙(30조)
복지서비스 개발 근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퇴원 또는 퇴소하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정신질환자등이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제공 또는 지원 2. 정신질환자등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지원시설과 지역사회지원시설의 확충 3. 정신질환자등의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시사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긍정적 인식 마련 필요 현재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료 상담가의 화롱 근거 마련	

<표-6>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		
구분	법	시행규칙(31조)
복지서비스 개발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에게 제공하는 교육 내용 1. 보호와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3.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 활동 4. 그 밖에 정신질환자 동의보호와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가족에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방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
↓		
시사점	정신질환자 가족도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라는 점을 인정한 조항으로, 향후 정신질환자 가족의 소진을 예방하는 등의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내용 추가 필요	

⑧Recovery(회복)의 원리



⑨의사결정에 따른 개입모델

	가부장적 모델	함께하는 의사 결정모델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하는 모델
치료자의 역할	적극적 - 모든 정보 확보 - 자신만의 최선 치료법 선택	적극적 - 환자와 정보공유 - 치료법 추천 - 환자와 함께 치료법 선택	수동적 - 환자와 정보공유 - 결정하지 않음.
환자의 역할	수동적 - 치료자 결정에 수용	적극적 - 모든 정보 공유 - 자주적인 결정 - 치료자와 함께 치료법 상의 및 선택	적극적 - 모든 정보 공유 - 자주적인 결정 - 스스로 치료법 선택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치료자	치료자와 환자	환자

9) 결론

- ① 1995년 정신보건법 이후 한국 정신보건은 많은 변화와 발전에 초석
- ②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과 국민건강증진을 가져올 것이나, 탈원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필요
- ③ 민관 협력이 국가 정신보건 체계 확립에 필수
- ④ 정신보건전문가 또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함.

2. 정신재활시설의 방향성 수립-2(정신재활시설 복지서비스의 방향성 이해)

1) 서론

- 개정된 법에는 현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복지서비스의 제공(4장)’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과 비교하여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향후 전략과제 및 정신재활시설 복지서비스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함.

2) 정신건강증진법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고찰

①복지지원 및 서비스 절차와 관련된 규정 미반영

<표-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조항	발달장애인법
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 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등 제19조(개인별지원 계획의 수립)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문 제 점	↓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물리적인 참여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거나 일정적 부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 복지서비스의 제공(제4장)의 경우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책무성 규정을 전적으로 누락하여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신청과 수급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②발달장애인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복지서비스 비교

<표-2>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법률 간의 비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제28조(소득보장)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2조(휴식지원 등)	없음.
↓	
1. 가족지원서비스 중 상담지원 및 휴식지원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음. 현행법 상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주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대상자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되어 제외된 것으로 보임. 복지서비스의 제공 중 소득보장 부분에 대한 서비스 대상의 기준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서비스 제공과 권리옹호를 함께 담당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기능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주체로 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복지서비스 제공(제4장)이 아닌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제3장)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로서 정체성이 명확화 되지 않음. 3. 발달장애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할 뿐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보장에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은 별도의 법 체계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위임하였다면, 현행법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장받는 정도의 대등한 서비스와 권리들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	

3) 복지서비스 지원의 전략과제

①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새로운 전략과제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② 평생교육 지원

- 이상적인 전략과제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

③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벗어나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필요

④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명시되지 않는 조항들을 추가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

4) 정신재활시설의 복지서비스 방향성,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하며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 보완노력 및 보호의무자에게 무거운 보호 및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 지원의 강화 필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와 함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

①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정신재활시설의 확고한 역할 정체성 확립

- 변화되는 정신보건정책의 환경에 맞추어 서비스 전달체계 내 정신재활시설의 확고한 역할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가 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②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기능화 방안 마련

-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총량은 제한되어 전통적인 정신보건기관들 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임.

③ 생애주기별, 대상별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개발

- 한국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과 함께 기존의 정신재활시설 내 이용자의 연령 또한 점차 고령화되면서 고령층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④ 회복기반의 당사자 중심의 철학 반영

-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정에 당사자를 주체로 바라보는 회복기반의 당사자 중심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2-1. 정신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례-1(평생교육서비스의 실천적 방법)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① 평생교육(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 평생교육법 제2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국민이 평생에 걸쳐 교육에 참여

- 학교교육 중심의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기회를 제공
-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화경정비와 다양한 지원활동

② 평생학습

- 교육의 수요측면으로 종전의 교육공급자(교육자) 중심 교육이 아닌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의미

- 개개인이 학습자가 되어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문화적인 용어, 제공자에 의해서 강요받은 교육
- 개인화된 학습으로의 전환을 나타낸 개별화 과정의 일부
- 학습자의 자발적 자립적인 학습활동

③ 평생교육 의의

- 학교 중심 교육 과정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학습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회

-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교육에 **적극**

적으로 관여

④ 평생교육 특징

- 계속적인 활동
- 진보와 발전을 위해 스스로 책임
- 개인의 능력과 개별적 가치, 공유된 가치와 협동작업은 지식의 추구와 대등한 것으로 인정
- 학습 결과는 실패 정도가 아닌 진보 정도를 고려

⑤ 안드라고지

- 기존 교육학의 개념인 **페다고지**와 상반되는 개념
- 페다고지는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학과목 주입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수에 의존하여 전일제로 운영되는 특징을 지님
- 안드라고지는 **성인을 교육**하는 학문
- 성인학습자의 개인차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확대

성인 교육은 성인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양식, 시간, 장소, 학습속도가 만들어 내는 개인차를 충분히 수용

⑥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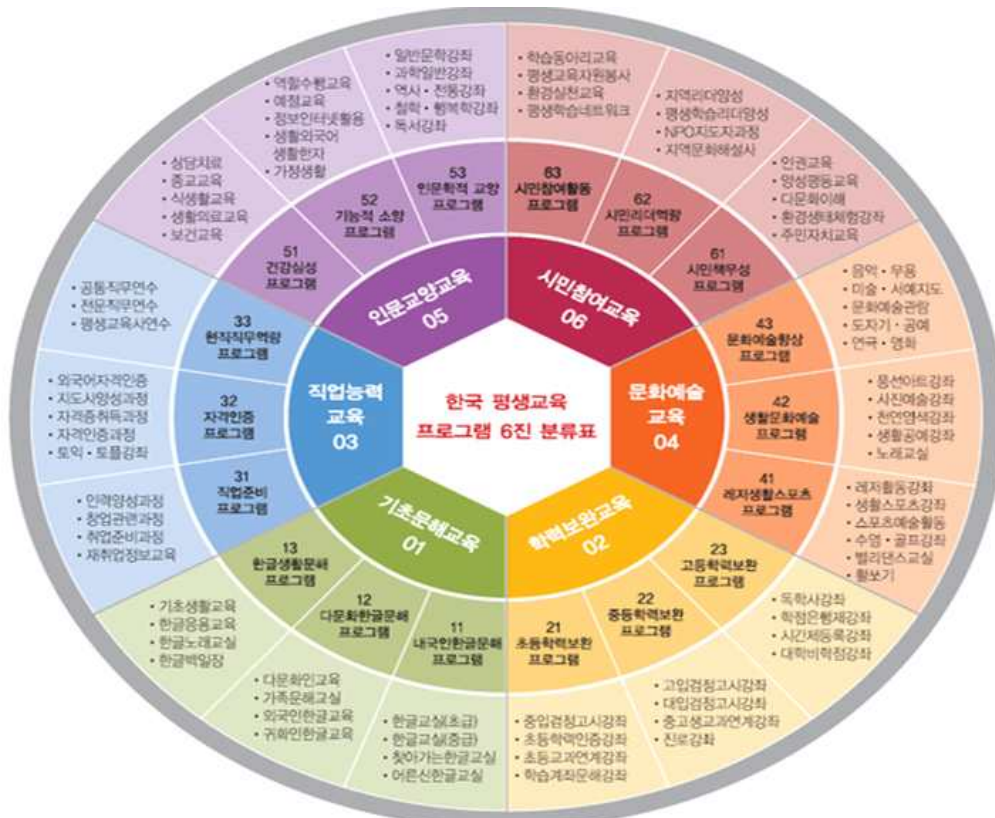
- 지적 결함 중 기억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 성인 학습자는 학령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 등을 교사의 반복적 가르침이 없는 시간을 지내면서 상당 부분 상실하기에 학령기 이후 성의 계속적인 교육 필요

- 장애 성인학습자들은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많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를 넘어서 사회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적응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

- 장애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빠르고 빈번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일회적인 교육이 아닌 평생에 걸친 교육이 필요

2-1. 정신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례-1(동광임파워먼트센터 평생교육사업)

1)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



2)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



3) 평생교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초기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2017년 -정신장애인 평생학습계획 매뉴얼 제작 -학력보완교육 지원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교양/취미정신건강교육 지원 2018년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2019년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세미나 2020년 -동광정신장애인평생교육원 개소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컨퍼런스	2021년 -동광정신장애인평생교육원 정신장애인 일자리 창출 -동광정신장애인 평생교육원 컨퍼런스

4) 평생교육사업 내 역할

① 활동가

-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프로그램 제시
- 학습자로서의 역할
-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과정 수료 후 당사자 코디네이터 활동

② 동반자

- 평생교육 의견 반영하여 프로그램 제시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후 평생교육사 역할
- 강사, 자원봉사자, 학습장 등 외부자원 연계

※ 동광임파워먼트센터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 욕구 중 대부분이 학력보완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격증, 취업, 취미, 교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 당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했던 프로그램으로는 동물매개활동사 자격증(치료도우미 동물을 매개하여 정서 및 심리치료 등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 취득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하였음. 또한 UCC제작을 통해 DSLR카메라 및 휴대폰 사용방법 교육을 통해 사진을 찍고 이후 연 1회 사진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음.

5) 평생교육사업의 향후 방향

① 평생교육기관 인증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법적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기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로서 정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기관을 인증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 2017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1조, 12조 시설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 시너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

6)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정신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필요
- 평생교육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연결고리 확인(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 평생교육법의 기준이 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준비
- 현재의 기관에서 정신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2-1.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례-2(정신장애인의 학업지원)

태화 샘솟는 집(이하 시설)에서 이용하는 20대 이용인들의 욕구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대학을 못가거나 자신을 제외한 주변 지인들은 대학을 나왔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였음. 현재 대학 진학률은 2017년 기준 70.9%이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 52.5%는 ‘심한 장애와 증상들 때문’(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이라고 조사되었음. 그리고 20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 중 91%는 ‘집에서 부모와 혹은 혼자 시간을 보낸다.’(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라고 응답하였음.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교육 지원 욕구조사 결과 ‘20인 미만의 인원이 모인 곳에서 한 학기에 3가지 정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응답하였음(정신장애인의 지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이에 시설에서는 이러한 욕구조사를 통해 “SAEM COLLEGE”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대학교의 경우 누구나 경험을 할 수 있고 초·중·고와는 다르게 스스로 수강신청을 하면서 자율성과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대의 정신장애인들이 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였음.

2일차

3-1. 정신재활시설의 인권과 과제(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재활시설의 인권 과제)

1)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과 변천

① 정신보건법의 제정의 필요성(1960년대 이전)

-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 대두
- 정신질환자 범죄 대두
- 법무부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 개입
-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 국회 통과
- 1996년 12월 31일 시행령 공포 시행

② 정신보건법 제정 이유 및 한계

- 기존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 인권유린 및 범죄예방에 있음. 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한계의 경우 시설수용화가 급속화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역할 하지 못함.

③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 불합치

- 2015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적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6년 9월 2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헌법불일치로 결정되었음. 또한 UN에서도 장애인의 권리, 의지 선택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적,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였음.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있어 입원제도에 가장 큰 변화로 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함. 이외에 다른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참고

제41조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원의사 2개월 마다 확인
제42조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동의 받아 입원 신청 - 퇴원신청 시 지체없이 퇴원 -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정하여 72시간 까지 퇴원 거부 가능, 제43조 또는 제 44조 입원전환 가능 -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필요성(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 - 정확한 진단을 위한 2주 범위 내 입원가능 - 진단결과 2주 이상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이후 연장은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제44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진단의뢰 - 2주 진단 이원가능 - 진단결과 2명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자타해 위험 시 119구급대원에게 호송 도움 요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제50조 응급입원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신청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 호송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 대해 3일내 입원 가능 - 정신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 계속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계속 입원 필요시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른 입원조치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최종입원심사	- 제42조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 결과 통지 - 제48조 입원적합성 조사

3) 정신건강복지법의 사회복지법 측면에서의 이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큰 틀에서 보자면 장애인에 속해있으나 현재 정해져 있는 법이나 복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지원에 제약이 여러 가지가 보임. 장애인복지법에 제15조의 경우 정신보건법 예우 및 지원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각종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자기결정권, 선택권, 자립생활,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상 활동지원 등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며 관련 서비스들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었음.

4)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적 함의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강제입원에 대한 공적개입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입원적정성
	최초입원심사-국가적 입원심사기구로 독립된 심사 시스템 도입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계속입원심사기구로 정신건강심사위원 -인신보호청구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법심사기구와 의료기구 모두 갖추게 됨
	정신장애인복지입 법으로의 전환	-정신질환자에대한 주거, 고용, 평생교육,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전면 지원 -재활, 복지, 권리보장

5) 정신재활시설에서의 인권적 실천

인권은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를 말함(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이용자의 개인적 성격, 정부지원 부족, 이용자 간의 갈등, 종교적 자유 강요, 장애수당,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 등 다양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용자와 종사자 인권쟁점은 고정관념과 업무과정의 관행에서 이루어짐. 이용자의 경우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존재,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 등의 고정관념이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 이용자를 대하는 경직된 자세, 실효성과 체계적인 인권교육 부족에서 나타남. 이러한 기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자유권 보장, 생존권의 권리, 사회권 담보가 필요함. 이렇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동등한 권리보장, 둘째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존중, 셋째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화와 치료적 환경 보장, 넷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조성, 다섯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필요함.

3-2. 당사자 인권활동의 실제

당사자 인권활동가로 양경모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음.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참살이클럽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침묵의 소리”라는 자조모임 간사로 위임되어 있음. “침묵의 소리”라는 자조모임은 부산지역의 정신장애인 리더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역할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이라고 함. 당사자활동 중 “침묵의 소리”에 대한 활동 소감을 이야기해주었는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으면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한 경험 등 인권을 침해받았던 것을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당사자활동에 대한 마인드가 변했다고 느꼈다 함. “침묵의 소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인들의 요구사항은 7가지로 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생활 불이익 우려 해소 ② 정신장애인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동료상담), ③ 정신장애인의 낮은 결혼율에 대한 문제 해결, ④ 주거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 ⑤ 기초생활수급자 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 ⑥ 언론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기사, ⑦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가 있음. 양경모 강사가 정신질환의 당사자로서 조건의 평등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는데 장애와 비장애는 같은 경쟁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에 일자리를 구할 때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하였음.

2017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남동발간 2018-3호

- 발행일 : 2018년 1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이 연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